



차례

이슈와 진단	02
● 한중 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03
중국 이해를 위한 해설	18
● 중국의 역대 5개년계획 수립배경과 특징(2)	19
중국 지역별 정책 동향	40
● 리커창 총리가 밝힌 10대 중국 경제 신호	41
● 2016년 전국 양회 주요 이슈	44
● 16개 도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관련 규칙 개정	46
● 산둥성, 1인당 GRDP '1만 달러 선' 진입	47
● 중국 27개 성, 직할시 결혼과 출산 휴가 기간 조정	49
충청중국포럼 소식	52
● 제 8차 충청중국포럼	53
● 제 9차 충청중국포럼	55
● 제 10차 충청중국포럼	58
발간목록	62

이슈와
진단

한중 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남수중



◆ 한중 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I. 서론

- 한국과 중국은 2012년 첫 협상을 시작한 이후 2014년 11월에 최종 타결되고 2015년 6월에 양국 통상장관이 정식 서명하였다.
 - 이번 FTA 체결을 계기로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해진 한국의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역시 교역 및 투자 확대와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지역별, 산업별, 품목별로 영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한중 FTA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 특히 중국의 급성장에 혜택을 컸던 충남지역은 적절한 대응전략을 통해 한중 FTA의 성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II. 충남 제조업의 보완 및 경쟁관계 분석

1. 산업내무역지수

- 충남과 중국의 분업관계의 보완성을 분석하기 위해 산업내무역지수(Intra Industry Trade), IIT)를 사용하였다.
 - 특정산업의 산업내 무역 정도를 추정하기 위해 조정된 GL(Grubel-Lloyd)지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GL지수는 0에서 1의 값을 갖는다.
 - 동 지수의 값이 0이면 수출 또는 수입에 완전 특화된 것이며, 1이면 수출규모와 수입규모가 대칭적으로 같아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극대화된 경우를 의미한다.

- 본문에서 분석한 충남지역의 상위 20개 수출품목의 산업내무역지수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 충남지역의 대중국 무역은 대부분 일방적 무역(one way trade)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충남지역 대중국 수출 상위 20개 품목은 GL지수가 0에 근접하여 수출 또는 수입에 완전 특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현재까지 충남의 대중국 수출 품목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일방적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된다.

<표 1> 충남지역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산업내무역 지수 추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자부품	0.013	0.022	0.017	0.013	0.011
산업용전자제품	0.007	0.007	0.005	0.004	0.004
석유화학제품	0.003	0.003	0.002	0.002	0.003
수송기계	0.007	0.006	0.005	0.009	0.004
광물성연료	0.026	0.020	0.006	0.007	0.003
정밀기계	0.001	0.002	0.001	0.001	0.001
기초산업기계	0.007	0.007	0.006	0.008	0.010
플라스틱제품	0.007	0.004	0.003	0.002	0.003
정밀화학제품	0.010	0.013	0.010	0.011	0.013
기타기계류	0.000	0.001	0.001	0.000	0.001
가구	0.004	0.007	0.007	0.007	0.008
전선	0.014	0.012	0.008	0.008	0.008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0.004	0.003	0.003	0.003	0.003
중전기	0.005	0.004	0.004	0.003	0.004
비철금속제품	0.005	0.007	0.006	0.004	0.005
산업기계	0.003	0.003	0.002	0.002	0.002
철강제품	0.012	0.011	0.012	0.007	0.006
가정용 전자제품	0.004	0.003	0.001	0.001	0.003
비금속광물	0.001	0.003	0.003	0.001	0.002
기타화학공업 제품	0.001	0.001	0.001	0.002	0.003

주: MTI 2단위 기준으로 필자 계산
자료: 한국무역협회

2. 무역특화지수

- 무역특화지수(TSI)는 수출에 대한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양국 사이 교역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작성된 지표이다.
 - 지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수입특화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1에 근접할수록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충남의 대중국 상위 20대 수출입 제품에 대한 무역특화지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2>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 2014년 MTI 2단위를 기준으로 수출 특화된 제품군은 전자부품(0.979), 석유화학제품(0.978), 산업용 전자제품(0.964), 정밀기계(0.949), 광물성 연료(0.901), 수송기계(0.898) 등이며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밖에도 수출 특화된 제품군으로는 기타 기계류(0.782), 플라스틱제품(0.720), 기초산업 기계(0.506), 산업기계(0.502),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0.345), 충전기기(0.159) 등이 있다.
- 반면, 2014년 기준 수입 특화된 제품으로는 철강제품(-0.640), 전선(-0.422), 비금속광물(-0.290), 가정용 제자제품(-0.245), 비철금속제품(-0.124), 기타화학공업제품(-0.077), 가구(-0.008) 등이 있다.

<표 2> 충남지역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추이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자부품	0.518	0.511	0.648	0.831	0.943	0.971	0.977	0.959	0.964	0.970	0.979
산업용전자제품	0.968	0.953	0.900	0.824	0.744	0.785	0.864	0.904	0.968	0.980	0.964
석유화학제품	0.992	0.989	0.989	0.989	0.973	0.967	0.974	0.974	0.982	0.984	0.978
수송기계	0.897	0.884	0.763	0.633	0.465	0.646	0.652	0.674	0.850	0.707	0.898
광물성연료	-0.360	-0.264	0.162	-0.087	-0.031	0.189	0.430	0.587	0.862	0.751	0.901
정밀기계	0.945	0.890	0.826	0.850	0.875	0.842	0.857	0.773	0.848	0.957	0.949
기초산업기계	0.979	0.971	0.713	0.463	0.417	0.401	0.728	0.796	0.726	0.581	0.506
플라스틱제품	0.642	0.651	0.463	0.347	0.504	0.321	0.584	0.765	0.745	0.782	0.720
정밀화학제품	-0.260	-0.241	-0.009	-0.254	-0.274	-0.224	-0.237	-0.174	-0.201	-0.145	-0.189
기타기계류	0.933	0.882	0.789	0.670	0.891	0.816	0.893	0.849	0.800	0.837	0.782

가구	0.087	0.027	-0.010	-0.242	-0.312	-0.342	-0.024	-0.005	-0.031	0.062	-0.008
전선	0.159	0.407	0.064	-0.309	-0.289	-0.194	-0.190	-0.390	-0.494	-0.408	-0.422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0.300	0.241	0.132	0.236	0.221	0.373	0.419	0.383	0.271	0.275	0.345
중전기	0.287	0.290	0.061	0.011	0.226	0.381	0.411	0.500	0.463	0.604	0.159
비철금속제품	0.567	0.613	0.468	0.300	0.400	0.506	0.284	0.062	-0.051	-0.169	-0.124
산업기계	0.922	0.745	0.509	0.377	0.387	-0.024	0.381	0.429	0.347	0.451	0.503
철강제품	-0.013	-0.167	-0.411	-0.450	-0.466	-0.025	-0.381	-0.385	-0.245	-0.483	-0.640
가정용 전자제품	0.971	0.950	0.632	-0.017	0.405	-0.588	-0.070	0.054	-0.579	-0.580	-0.245
비금속광물	-0.613	-0.576	-0.684	-0.633	-0.412	-0.909	-0.738	-0.244	-0.150	-0.390	-0.290
기타화학공업 제품	-0.077	0.059	-0.111	-0.138	-0.273	-0.366	-0.533	-0.596	-0.523	-0.284	-0.077

주: MTI 2단위 기준으로 필자 계산
자료: 한국무역협회

3. 현시비교우위지수

- 충남지역 대중국 수출 제품의 비교우위를 추정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계산하였다.
 - 일반적으로 동 지수가 1보다 크면 비교우위가 있는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충남지역 상위 20개 수출 품목은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고).
 -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현시비교우위지수(MTI 2단위)를 고려할 경우, 산업용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광물성연료, 정밀기계, 기초산업기계, 기타기계류, 가구, 전선, 중전기, 산업기계, 비금속광물 등이 지수 값이 1보다 높아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자부품도 2010년 이후 1이상의 지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광물성 연료, 정밀기계, 기초산업기계, 기타기계류, 가구, 전선, 중전기, 산업기계 등의 수출 제품 비교우위는 하락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충남지역의 대중국 주요 품목별 현시비교우위지수 추이

	2003년	2005년	2007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03년 ~2014년 평균
전자부품	0.419	0.482	0.982	1.041	1.081	1.139	0.848
산업용전자제품	1.255	1.135	1.194	0.928	1.332	1.111	1.145
석유화학제품	2.852	2.484	2.087	1.678	1.509	1.673	2.083

수송기계	0.631	0.543	0.235	0.313	0.468	0.605	0.433
광물성연료	2.255	1.614	1.143	0.769	0.482	0.305	1.119
정밀기계	1.318	1.946	1.505	0.880	0.552	0.935	1.366
기초산업기계	3.473	3.185	0.870	1.592	1.294	0.954	1.771
플라스틱제품	0.879	0.790	1.016	1.060	0.804	0.654	0.935
정밀화학제품	0.409	0.576	0.668	0.584	0.540	0.589	0.622
기타기계류	2,394	1,751	1,415	1,025	1,289	1,139	1,547
가구	4,412	1,509	1,753	1,472	1,406	1,768	2,035
전선	3,130	3,128	1,403	1,217	0,842	0,848	1,666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0,585	0,959	0,991	0,981	0,622	0,610	0,857
중전기	1,831	2,036	1,263	1,089	0,850	0,596	1,366
비철금속제품	1,436	0,960	0,832	0,850	0,640	0,704	0,915
산업기계	2,106	1,705	0,934	0,667	0,541	0,601	1,150
철강제품	1,156	0,559	0,333	0,255	0,250	0,154	0,396
가정용 전자제품	0,981	0,496	0,200	0,388	0,219	0,324	0,475
비금속광물	3,676	3,150	2,208	1,772	2,082	1,745	2,478
기타화학공업 제품	0,858	1,350	0,906	0,653	0,856	0,872	0,962

주: MTI 2단위를 기준으로 필자 계산
 자료: 한국무역협회

4. 수출경합지수

- 수출경합지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충남지역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국내의 경기지역, 해외의 대만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표 4〉, 〈표 5〉을 참고).
- 충남지역의 대중국 수출 제품이 경기지역과의 경합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추정되는 분야는 전자부품, 산업용전자제품 등에 불과하다.
 - 또한 충남지역과 대만의 대중국 수출의 경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품군은 전기기기 와 그 부분품,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등에 불과하여 충남지역이 대만과는 크게 경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충남지역과 경기지역의 수출경합지수 추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자부품	0.1996	0.3229	0.3466	0.2694	0.2367	0.2091	0.3143
산업용전자제품	0.0065	0.0041	0.0065	0.0102	0.0247	0.0341	0.0159
석유화학제품	0.0031	0.0021	0.0016	0.0021	0.0022	0.0019	0.0015
수송기계	0.0004	0.0005	0.0005	0.0008	0.0012	0.0010	0.0014
광물성연료	0.0001	0.0001	0.0002	0.0002	0.0003	0.0001	0.0001
정밀기계	0.0002	0.0001	0.0002	0.0002	0.0001	0.0006	0.0004
기초산업기계	0.0014	0.0007	0.0011	0.0016	0.0011	0.0008	0.0006
플라스틱제품	0.0003	0.0004	0.0003	0.0004	0.0003	0.0003	0.0002
정밀화학제품	0.0002	0.0001	0.0001	0.0002	0.0001	0.0001	0.0001

주: 상위의 품목이 충남지역 대중국 수출의 96%를 차지하며, 경기지역은 MTI 2단위를 기준으로 필자 계산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5〉 충남지역과 대만의 수출경합지수 추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기기와 그 부분품	0.0628	0.0717	0.0751	0.0845	0.1200	0.1514	0.1638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0.0775	0.1008	0.1022	0.0754	0.0547	0.0383	0.0320
유기화학품	0.0150	0.0108	0.0091	0.0113	0.0112	0.0137	0.0109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0.0058	0.0034	0.0056	0.0080	0.0068	0.0068	0.0083
플라스틱 및 그 제품	0.0067	0.0066	0.0058	0.0054	0.0044	0.0038	0.0039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0.0000	0.0001	0.0001	0.0001	0.0002	0.0002	0.0003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악스	0.0037	0.0006	0.0004	0.0005	0.0006	0.0003	0.0004

주: 상위 품목이 충남지역 대중국 수출의 97%를 차지하며, 대만은 HS 2단위를 기준으로 필자 계산
 자료: 한국무역협회

III. 한중 FTA의 영향에 대한 부분균형모형 분석

- 본 연구에서는 탄력성 분석 접근법을 통해 또는, 그리고 의 값을 추정하고 관세율 조정 후의 산업별, 품목별 수입/수출 증가분을 예측하였다.

● 먼저 아래의 <표 6>는 충남지역의 대중국 품목별 수출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이다. 의 계수 값이 HS 코드별 수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의미한다.

- 충남지역의 대중국 상위 수출 20대 품목의 수요 가격탄력성을 통해 관세 철폐이후의 수출 증가분을 예측할 수 있다.

<표 6> 충남지역 대중국 품목별 부분균형모형 실증 분석 결과(수출효과 OLS)

종속변수: $\ln X_t$	상수항 (α_0)	$\ln YF_t(\alpha_1)$	$\ln XP_t(\alpha_2)$	$\ln XP_t^*(\alpha_3)$	$\ln KREER_t(\alpha_4)$	R^2	관측치
HS85	12,545 (1,369)	1,334** (0,091)	1,205*** (0,054)	1,860** (0,130)	3,150*** (0,153)	0,982	13
HS90	8,753 (14,396)	2,347*** (0,460)	2,035*** (0,398)	-1,293*** (0,382)	-1,332 (2,593)	0,962	13
HS29	13,710*** (2,400)	0,650*** (0,076)	1,814*** (0,192)	-1,420*** (0,215)	1,168*** (0,227)	0,997	13
HS84	17,017** (7,069)	1,022*** (0,175)	1,433*** (0,186)	-0,042 (0,353)	-0,007 (1,444)	0,951	13
HS39	31,526*** (5,876)	0,209 (0,238)	0,699 (0,488)	0,485 (0,325)	-1,138** (1,444)	0,983	13
HS87	-13,330 (18,559)	1,100 (1,163)	-0,151 (1,258)	2,000 (3,246)	6,586 (4,385)	0,633	13
HS27	29,668 (19,570)	-0,169 (0,841)	-0,290 (1,055)	1,555* (0,748)	0,300 (1,356)	0,802	13
HS94	-57,330 (65,467)	3,530* (1,744)	0,082 (1,293)	3,040 (7,293)	12,876* (6,383)	0,759	13
HS28	1,492 (5,399)	1,229*** (0,232)	0,463*** (0,092)	0,300 (0,228)	2,347*** (0,632)	0,981	13
HS72	22,008** (7,242)	-0,084 (0,228)	-1,108* (0,536)	1,811** (0,563)	0,493 (0,754)	0,811	13
HS38	9,500 (10,785)	0,688 (0,526)	0,499 (0,287)	-0,069 (1,305)	0,894 (1,000)	0,898	13
HS73	-2,465 (15,073)	1,146 (0,652)	0,249 (0,445)	-0,234 (0,647)	2,144 (1,435)	0,836	13
HS74	-8,735 (43,753)	1,102 (1,869)	-0,402 (2,447)	0,802 (3,020)	4,184 (5,184)	0,711	13
HS25	13,511* (6,537)	0,878*** (0,226)	0,782*** (0,175)	0,864* (0,445)	1,566 (1,090)	0,966	13
HS32	0,629 (17,648)	1,765 (1,461)	-0,660 (1,153)	0,511 (1,867)	-0,002 (2,006)	0,913	13
HS33	0,170 (9,898)	1,214** (0,370)	0,037 (0,308)	0,533 (1,261)	1,655 (1,019)	0,909	13
HS76	8,440 (13,746)	0,243 (0,491)	0,738 (0,461)	-0,481 (0,896)	1,598 (1,652)	0,382	13
HS70	-6,569 (12,352)	2,177*** (0,541)	0,514 (0,412)	0,010 (0,681)	1,570 (1,750)	0,921	13
HS56	7,126 (12,502)	0,257 (0,586)	0,498 (0,733)	-0,518* (0,264)	1,440 (1,710)	0,864	13
HS40	-12,523 (13,481)	2,208** (0,669)	-2,087*** (0,387)	1,340* (0,703)	1,526 (1,111)	0,842	13

주:() 안은 표준오차,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표시함
자료: 필자 추정

- 충남지역의 대중국 수출 수요 가격탄력성, 관세율 철폐 등을 고려할 경우, 상위 20대 수출 품목을 기준으로 한 관세 철폐 효과는 2014년 기준 약 25억 7천만 달러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표 7>은 주요 HS 코드별 수출 증가 및 감소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이런 수출 증가 규모는 상위 20대 수출 품목이 전체 충남지역 대중 수출의 99%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예측이라고 할 수 있다.
- 관세 철폐에 따른 영향을 부분균형분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전 기기와 부분품의 경우 연간 약 12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수출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 또한 중국의 수입관세 철폐로 인해 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 정밀기기와 의료용 기기 및 부분품 등의 분야는 연간 약 7억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그밖에도 비환식탄화수소 등이 포함된 유기화학제품은 관세 철폐로 인해 연간 약 3억 4천만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수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등도 2억 8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가 예측되었다.
- 그러나 일부 철도, 광물성 연료, 철강 분야 등에서는 관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7> FTA 체결이후 관세 철폐에 따른 품목별 수출 증가 및 감소 규모 예측

HS 코드 (2단위 기준)	2014년 대중국 수출액 (백만 달러)	중국 관세율 (%)	수출 수요 탄력성	관세 철폐에 따른 대중국 수출 증감액 (백만 달러)
85(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12,997,270	8.3	1.205	1200,297
90(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5,709,767	6.6	2.035	719,399
29(유기화학품)	3,567,539	5.6	1.814	343,186
84(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2,751,648	7.7	1.433	281,912
39(플라스틱 및 그 제품)	1,151,032	7.9	0.699	58,907
87(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1,076,054	15.9	-0.151	-22,291

27(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악스)	939,115	4	-0.29	-10,475
94(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132,047	6	0.082	0,613
28(무기화합물,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무기화합물)	86,812	5	0.463	1,914
72(철강)	61,775	4.9	-1.108	-3,197
38(각종 화학공업생산물)	52,055	7	0.499	1,699
73(철강의 제품)	47,644	9.3	0.249	1,009
74(동과 그 제품)	42,808	5.8	-0.402	-0,943
25(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35,366	2.7	0.782	0,727
32(유연, 염색액, 탄닌과 그 유도체, 염료, 안료, 페인트, 퍼티, 잉크)	32,165	7.5	-0.66	-1,481
33(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화장품류, 화장품용품류)	30,198	11.9	0.037	0,119
76(알루미늄과 그 제품)	27,130	8.5	0.738	1,569
70(유리와 유리제품)	22,182	12.1	0.514	1,231
56(워딩, 펠트, 부직포, 특수사, 끈, 코오디지, 로페스, 케이블과)	21,695	8.4	0.498	0,837
40(고무와 그 제품)	20,352	11.1	-2.087	-4,244

자료: 필자 계산

- 그리고 수입 증가분을 예측하기 위해 아래의 <표 8>와 같이 수입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HS 코드별로 추정하였다.

- 이런 결과는 충남지역의 대중국 수입 품목 상위 20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표 8> 충남지역의 대중국 품목별 부분균형모형 실증 분석 결과(수입효과 OLS)

종속변수: $\ln M_t$	상수항 (β_0)	$\ln Y_t$ (β_1)	$\ln MP_t$ (β_2)	$\ln KER_t$ (β_3)	R^2	관측치
HS85	-6.510 (10.408)	2.070*** (0.282)	0.422 (0.414)	1.585 (1.553)	0.921	13
HS72	9.977 (12.059)	0.657 (0.818)	2.133*** (0.618)	3.925** (1.236)	0.909	13
HS84	-10.729 (8.165)	2.917*** (0.451)	0.654** (0.250)	0.677 (1.495)	0.834	13
HS28	20.085* (9.921)	2.128*** (0.607)	1.570*** (0.451)	-2.971** (1.134)	0.937	13
HS94	-14.489 (26.543)	2.406 (2.359)	1.733* (0.931)	3.499 (2.204)	0.922	13
HS05	0.794 (6.070)	1.097** (0.462)	0.749*** (0.183)	1.796 (1.431)	0.886	13
HS29	6.373 (9.401)	2.341*** (0.461)	-0.131 (0.286)	-2.731** (1.081)	0.88	13

HS73	17,032** (5,269)	1,119** (0.384)	1,931*** (0,259)	0.464 (0.543)	0.985	13
HS76	-8.007 (23.349)	4,730*** (0.618)	1,063 (1,763)	-3.622 (2.413)	0.905	13
HS39	14,769** (4,496)	1,823*** (0.266)	1,363*** (0.172)	-1.713** (0.652)	0.971	13
HS87	-34.677** (13,000)	5,418*** (0.848)	0,538 (0,932)	-0.017 (2,294)	0.893	13
HS38	10,529* (4,847)	1,727*** (0,493)	0,476** (0,186)	-1,603 (1,466)	0,94	13
HS90	-10,087 (14,493)	3,821*** (0,553)	1,006 (0,562)	-1,654 (2,223)	0,891	13
HS69	-7,258 (6,942)	3,630*** (0,421)	1,167 (0,821)	-0,874 (1,906)	0,924	13
HS27	2,826 (11,935)	0,517 (1,354)	-0,535 (0,428)	1,531 (2,253)	0,587	13
HS68	21,669 (12,631)	0,654 (0,640)	1,704* (0,770)	0,624 (0,826)	0,873	13
HS25	13,754** (5,372)	1,515*** (0,358)	0,371 (0,222)	-1,933** (0,779)	0,907	13
HS48	-7,145 (6,602)	2,021*** (0,483)	-0,637 (0,424)	-0,223 (1,164)	0,852	13
HS23	44,734** (14,014)	-1,676 (1,085)	1,851* (0,979)	0,819 (1,724)	0,399	13
HS95	11,943 (9,069)	0,319 (0,436)	0,880 (0,510)	1,023 (1,020)	0,606	13

주: () 안은 표준오차,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표시함
자료: 필자 계산

- FTA 체결 이후 관세가 폐지되는 효과와 주요 품목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 등을 고려할 경우, 2014년 기준 전체적으로 충남지역에서는 약 9천 860만 달러의 대중국 수입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 충남지역이 산업별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예를 들어 전기기기 분야의 경우, 수출이 12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수입 규모는 약 1,500만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 반면, 철강분야는 수출이 감소하는 동시에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9〉 FTA 체결이후 관세 철폐에 따른 품목별 수입 증가 및 감소 규모 예측

HS 코드 (2단위 기준)	2014년 대중국 수입액 (백만 달러)	한국 관세율 (%)	수입 수요 탄력성	관세 철폐에 따른 대중국 수입 증감액 (백만 달러)
85(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610.085	6.1	0.422	14.802

72(철강)	359,637	0.4	2,133	3,056
84(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244,438	6.0	0,654	9,049
28(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 유기, 무기화합물)	209,398	5.1	1,57	15,953
94(가구와 침구,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 조립식 건물)	143,590	3.9	1,733	9,341
05(기타 동물성생산물)	129,003	7.2	0,749	6,490
29(유기화학품)	106,928	5.2	-0,131	-0,692
73(철강의 제품)	104,891	4.7	1,931	9,092
76(알루미늄과 그 제품)	95,752	7.4	1,063	7,013
39(플라스틱 및 그 제품)	80,952	6.5	1,363	6,734
87(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56,750	7.5	0,538	2,130
38(각종 화학공업생산물)	49,489	6.4	0,476	1,417
90(광학기기, 사진용 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7,493	6.3	1,006	2,832
69(도자제품)	45,813	8.0	1,167	3,960
27(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왁스)	40,447	4.1	-0,535	-0,852
68(석, 플라스틱, 시멘트, 석면, 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35,735	8.0	1,704	4,511
25(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35,565	3.3	0,371	0,422
48(지와 판지, 제지용펄프지 또는 판지의 제품)	26,599	0.0	-0,637	0,000
23(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과 웨이스트, 조제사료)	25,293	4.8	1,851	2,144
95(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21,589	6.6	0,88	1,176

자료: 필자 계산

IV. 요약 및 결론

- 충남지역과 중국의 교역 특성은 한국과 중국의 분업 및 경쟁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고 할 수 있다.
 - 보완 및 경합 관련 지표를 분석하여 충남지역의 주요 대중국 수출입 품목이 상호 보완적

인지 혹은 경쟁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 **충남지역의 주요 대중국 수출입 품목이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는 산업내무역지수(II)가 있다.**

- 일반적으로 산업내무역지수가 0.3 이상(한국과 중국 사이의 제조업 평균값)인 경우 산업내무역으로, 0.3미만인 경우 일방적 무역(one-way trade)으로 판단한다.
- 충남의 20대 상위 수출 품목 중에서 산업내무역지수가 0.3 이상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의 대중국 주력 품목은 일방적 무역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 충남 전자부품의 산업내무역지수가 0.01 수준일뿐 나머지 품목들은 모두 0에 근접하여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충남지역의 대중국 수출입 제품이 경쟁력 및 비교우위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역특화지수를 분석하였다.**

- 2014년 MTI 2단위를 기준으로 수출 특화된 제품군은 전자부품(0.979), 석유화학제품(0.978), 산업용 전자제품(0.964), 정밀기계(0.949), 광물성 연료(0.901), 수송기계(0.898) 등이며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밖에도 수출 특화된 제품군으로는 기타 기계류(0.782), 플라스틱제품(0.720), 기초산업 기계(0.506), 산업기계(0.502),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0.345), 충전기기(0.159) 등이 있다.
- 반면, 2014년 기준 수입 특화된 제품으로는 철강제품(-0.640), 전선(-0.422), 비금속광물(-0.290), 가정용 전자제품(-0.245), 비철금속제품(-0.124), 기타화학공업제품(-0.077), 가구(-0.008) 등이 있다.

●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남지역 상위 20개 수출 품목은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현시비교우위지수(MTI 2단위)를 고려할 경우, 산업용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광물성연료, 정밀기계, 기초산업기계, 기타기계류, 가구, 전선, 충전기기, 산업기계, 비금속광물 등이 1보다 높아 비교우위가 있다.
- 전자부품도 2010년 이후 1이상의 지수 값을 나타내고 있어 비교우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 반면, 충남지역 대중국 수출제품 중에서 광물성 연료, 정밀기계, 기초산업기계, 기타기

계류, 가구, 전선, 충전기기, 산업기계 등의 수출 제품 비교우위가 하락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충남지역의 대중국 수출 경합도를 국내 경기도, 해외의 대만과 비교 분석한 결과, 전자부품 분야에서 경기도와의 경합도가 상승하는 추세를 확인하였으며, 대만과의 경합도 역시 전기기기 및 그 부속품 부문에서 상승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 충남지역의 대중국 수출입 품목은 비교우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의 보완관계보다는 일방적 무역 위주의 구조를 보이고 있다.
 -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가 과거 가공무역 비중이 50%에서 40%대로 하락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다.
- 충남지역의 대중국 수출 수요 가격탄력성, 관세율 철폐 등을 고려할 경우, 상위 20대 수출 품목을 기준으로 한 관세 철폐 효과는 2014년 기준 약 25억 7천만 달러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이는 2014년 기준 충남의 대중국 수출 규모가 약 290억 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관세 철폐의 수출 증대 효과는 8.9%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4년 전체 충남 수출 651억 달러를 고려할 경우, 약 4%이상의 수출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 관세 철폐에 따른 수입 증대 효과도 2014년 기준으로 약 9천 8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바, 2014년 충남 전체 대중국 수입 규모가 약 28억 달러에 달한 것을 고려하면, 충남의 대중국 수입이 3.6%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 따라서 한-중 FTA 발효로 인해 충남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약 24억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충남의 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약 320억 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약 7.5% 증가한 것이다.
 - 이는 정태적 분석의 한계가 지적될 수 있으나, 2013년 기준 충남 GRDP가 약 2.6% 성장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이런 예측은 한중 FTA가 발효되면 5년후 한국 전체 실질GDP가 0.92-1.25% 증가하고 10년후 2.28-3.04%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추정과 비슷하거나 초과하는 것이다.
 - 충남지역 역시 한중 FTA 발효이후 수출 증대, 실질 GRDP 성장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 다만 충남지역에 미치는 산업별 효과가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충남지역 주력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은 한국 전체 수출구조와 유사하게 충남지역의 수출에서도 전기·전자제품과 더불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특히 일부 중국 석유화학제품의 관세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철폐의 혜택이 크고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관세 철폐기간이 다소 긴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 충남지역에서도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통신기기 등의 혜택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 동 분야는 중국과 비교하여 비교우위가 있으나 이미 관세율이 낮은 수준이며 중국 내에서도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수혜가 적을 수밖에 없다.
 - 또한 철강분야 역시 관세의 민감도가 높지 않고 고급제품 중심의 수출 구조이기 때문에 한중 FTA 발효의 영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 일반기계도 가공무역에 포함되어 기존 관세율이 높지 않고, 자동차 산업 역시 양허대상에서 제외되면서 FTA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한중 FTA 발효가 충남지역의 각 제조업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고려하여 대응전략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참고문헌 및 자료

- 대신증권(2015), “한중 FTA 타결: 시장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Issue 분석.
- 대한상공회의소(2014), “한중 FTA 타결과 우리기업의 대응실태 조사”, 보도자료(12월 1일).
- 박순찬(2011), “무역자유화의 동태적 누적효과: 한국 제조업”, 경제분석 제17권 제4호.
- 산업통상자원부(2015), “한중 FTA 정식서명, 중장기 미래 협력의 제도적 틀 마련” 보도자료(6월 2일).
- (2015),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보도자료(2월 26일).
- 우리금융경영연구소(2014), “한중 FTA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 이슈브리프.
- 정인교 외(2012), “한중 FTA의 농업분야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전남지역 농업을 중심으로”, 2012-04 한국은행 목포본부.
- 충남연구원, 월간 충남경제, 각호.
-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14),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주요산업 영향, 하나 산업정보 제88호(11월 20일).
- Deloitte(2015), “中国-韩国自由贸易协定-最受关注自贸协定之一” 税务评论.
- KOTRA(2015), “한중 FTA 업종별 기대효과와 활용방향”, KOCHI 자료 15-004.
- Kim, Sunghyun and Serge Shikher(2015), “Long-run Effects of the Korea-China Free-Trade Agreement”, Journal of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Vol. 19, No. 2 (June) 117-142.

〈통계자료〉

- 통계청(www.kostat.go.kr)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한국은행(www.bok.or.kr)
- WTO(www.wto.org)

중국
이해를
위한 해설

중국의 역대 5개년계획 수립배경과 특징(2)

- 개혁개방 이후: '6·5 계획'~'12·5 계획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장
박인성



◆ 중국의 역대 5개년계획 수립배경과 특징(2)

- 개혁개방 이후: '6·5 계획' ~ '12·5 계획'

“본지 지난호(6호, 1-2월호)에서 올해부터 중국정부가 실시하는 제13차 5개년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배경과 연혁을 설명하고자, [중국 이해를 위한 해설]란을 신설하고, “중국의 역대 5개년계획 수립배경과 특징(1)”이란 제목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출범 이후 개혁개방 이전 시기까지 수립된 ‘1·5계획’ (1953~1957)부터 ‘5·5계획’ (1976~1980)까지 계획수립 배경과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지면 관계로, 개혁개방 이전 시기까지만 다루고, 개혁개방 이후 진행과정은 다음 호에서 다루기로 한 바에 따라 후속 연재한다.”

● 개혁개방 이후 5개년계획의 수립배경과 주요 내용

- “4인방(四人幫)” 제압으로 “문화대혁명”을 끝낸 이후, 중국 앞에는 세가지 길이 있었다. 첫째, 계속 “계급투쟁을 강령을 견지하는 “낡은 길(老路)”, 둘째, 맹목적으로 서방자본주의제도를 답습 모방하는 “사로(邪路)”, 셋째, 신로(新路)로서, 소련모델과도 다르고 또한 사회주의 방향을 견지하며 고속발전의 길을 가는 중국의 길이었다. “낡은 길”로 가면 오직 더욱 가난해 질 것이고, “사로”로 가면 동란의 심연(深淵)에 빠질 것이고, 비록 어렵긴 하지만 “신로”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 1978년 중공 11기3중전회에서 실사구시(实事求是)의 정확한 노선을 다시 확인하고, 당과 국가공작중심의 전략 전이(轉移)를 확정했다. 또한, 필연적으로 생산력 발전과 적응하지 못하는 생산관계와 상층건축의 개변(改變)을 요구했고, 적응하지 못하는 일체의 관리방법, 활동방법 및 사상방법을 혁파하고 바꿨다. 이는 하나의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혁명이라 할 수 있다.

● ‘6·5계획’ (六五計劃: 1981~1985)

- 1982년 9월, 중국공산당은 제12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하고, 1981년부터 20세기말까지 경제건설의 전략목표, 전략중점 및 절차를 확정했다. 즉, 농업문제, 에너지, 교통문제, 교육문제 및 과학문제 해결에 중점을 둘 것을 요구했다.

- ‘6·5계획(六五計劃: 1981~1985)’부터 중국의 경제계획중 사회발전 내용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계획의 명칭도 (‘사회발전’을 추가하여)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国民经济与社会发展計劃)”으로 바뀌었다. ‘6·5계획’의 또 다른 특징은 경제업무의 중점을 개혁개방 이전의 균형발전이나 국방이 아닌 ‘경제효율 제고’에 둔 것이었다.
- ‘6·5계획’ 기간에, 중국경제는 조정·정돈에 성공했고, 국민경제는 협조, 효율을 중시하는 신체도에 진입했다. 동시에, 농촌경제체제 개혁도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고, 또한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체제 전면 개혁도 시작했다. 즉, 중국의 경제체제가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과거의 과도한 간섭과 경직된 통제체제에서 계획이 있는 상품경제가 요구하는 활력있는 신체제로 전환을 위한 적응과 전환을 시작했다.
- ‘6·5계획’은 1976년 마오쩌둥 사망 이후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주의 개혁파가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후, 마오의 계승자인 화궈펑(華國峰)을 중심으로 하는 ‘범시파(凡是派)’와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후에, 개혁개방 정책기조하에 정식으로 수립한 최초의 5개년계획으로, 문화혁명 이후에 장기간 사회주의 건설중 상반되는 양 방면의 경험교훈을 진지하게 총결하고, 중공중앙이 제출한, “1981년부터 20세기말까지 20년내에 공농업 총생산액 4배로 증대”를 목표로 수립, 제정되었다.
- ‘6·5계획’은 1975년, 1977년 두 차례에 걸쳐서, ‘1976~1985년 국민경제발전 10년 계획(規劃) 강요’ 초안의 일부분으로 수립되었다. 두차례 수립된 ‘6·5계획 강요’의 지표는 계속 상향조정되었다. 1985년, ‘6·5계획’이 규정한 공농업생산, 교통운수, 기본건설, 기술개조, 국내외무역, 교육과학문화, 인민생활 개선 등 방면의 임무와 지표는, 절대부분 조기 완성 또는 초과 달성되었다.
- 1980년부터, 기존의 계획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했고, 1982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5기 5차회의에서 정식 비준되었다.
- ‘6·5계획’기간에는, 개혁개방의 추동 하에, 중국경제가 전면적으로 발전했고, 특히 농업발전이 매우 빨랐다. 중공 정권 출범이래 발전이 가장 빨랐던 시기이고, 인민의 기본 소망인 ‘따뜻하고 배부른(温饱)’ 과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
- ‘6·5계획’이 규정한 공농업생산, 교통운수, 기본건설, 기술개조, 국내외무역, 교육과학문화, 인민생활 개선 등 방면의 임무와 지표, 절대부분이 조기완성 또는 초과달성되었다. 단, 계획기간 후기에는, 고정자산투자규모가 과대해 졌고, 경제과열도 출현했다.

[샤오강촌 농민의 생사협약]

1978년 12월의 추운 겨울밤, 安徽省 凤阳县 小岗村的 18户 농민이, 생산대 대장 옌홍창(严宏昌)의 주도하에, 사원 옌리화(严立华)의 허름한 집에서 회의를 하고, 국가와 집체에 충분한 공량(公粮)을 납부 및 보류한다는 전제 하에, '세대별 경지분할(分田到户)'을 실행하기로 하고, 만일 이로 인해 생산대 간부가 감옥에 가게 되면, 전체 사원이 그들 집의 농사를 공동분담해 주고, 또한 그들의 아이들을 18세까지 길러 주기로 결정했다.

모두의 맹세에 따라서, 모두 비밀엄수를 약속하고, 각서를 작성하고, 그 뒷면에 손가락 도장을 찍었다. 이것이 중국농촌의 대변혁을 촉진하고, '생산 연계 가정도급 책임제(家庭联产承包责任制)'로의 대전환을 잉태한 맹아중의 하나였다.

['6·5계획' 시기 덩샤오핑 어록]

인민의 춥고 배고픈 문제를 해결 못한다면, 그러고도 뭘 더 할 수 있겠는가? (胡耀邦, 1981)

총체적 말하자면, 향후 경제발전속도가 느리지 않을 것이다. 단, 초기 5년, 10년 간에는 속도가 아주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 초기 수년간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중대 사업은 온당하게 해야 한다. 앞에는 강이고 뒤에는 적군이 아오니,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강물 밑의 디딤돌을 더듬어 가면서 강을 건너자. (邓小平, 1981年10月)

30여년의 경험교훈이 우리에게 말한다. 문을 닫아 걸고 하는 건설은 안된다, 발전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빈곤을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다. 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는 더 더욱 아니다. (邓小平, 1984. 6)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이 일은 매우 대담한 것이다. 단, 만약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전진하기 어렵다. 개혁은 중국의 제2차 혁명이다. 이는 매우 중요하고 필히 추진해야 할 일이다. 비록 위험이 있다해도. (邓小平, 1985. 3)

● ‘7·5계획’(七五計劃: 1986~1990)

- ‘7·5계획(七五計劃: 1986~1990)’ 기간은 근 10년간 시행해 온 중국의 개혁개방이 관건 지점에 도달한 시기였고, 계획과 시장이 최후의 생사결단 시기에 도달한 시기였다. 신구 체제의 “공존공영”이 지속되기 어려웠고, 필연적으로 지속적인 방향전환이 요구되었다.
- ‘7·5계획’기간은 두 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앞의 단계는 1986~1988년 9월까지로, 특 징은 경제발전이 지속적으로 과열되었고, 불안정 요소가 증가했다. 뒤의 단계는 1988년 9월부터 1990년까지로, 소위 경제의 ‘치리정돈(治理整顿)’ 시기이다.
- ‘7·5계획’후기인, 1984년 제4분기부터, 고정자산투자 규모가 과대하고, 소비기금 증가 추세가 과속화되었고, 화폐발행이 과다해 지면서, 경제과열이 출현했고, 이러한 상황들 도 ‘7·5계획’ 수립 및 추진의 기초조건이 되었다. 경제과열 국면은 전체 ‘7·5계획’기간 중 불가피한 난제가 되었다.
- ‘7·5계획’ 수립 작업은 3년간 진행되었다. 1983년, 국무원이 ‘7·5계획’의 초안작업 조직 에 착수했고, 1986년 3월, 6기 인민대표대회 4차회의에서 심사·비준했다.
- ‘7·5계획’시기에 최대의 시험과 중점을 둔 전쟁은 “물가돌파(價格闯关)”였다.
- 1988년 5월 19일, 덩샤오핑이 인민대회당에서 북한(朝鮮)정부 군사대표단 접견 시에, “중국의 개혁은 ‘다섯 관문을 지나고 여섯 장수를 베어야(过五关斩六将)’한다. 물가 개 혁은 위험이 매우 크다. 단, 안할 수 없다. “위험과 곤란을 안고서”라 말했다.
- 1988년 6월, ‘인민일보’는 “개혁에 험한 장애와 악전고투가 있지만 해 낼 수 있다”는 제목 의 문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중국의 개혁이 오늘까지 발전하여, 이미 물가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관건 단계와 시기에 도달했다.”는 것이었다.
- ‘7·5계획’(1986~1990)의 주요내용은, ①5년 혹은 더욱 긴 시간 이내에, 기본적으로, 중 국특색의 신형사회주의경제체제의 기초를 기본적으로 구축한다. ②고정자산투자 총규 모를 통제한다는 전제하에, 중점건설을 적극 강화하고, 물질기술과 인재방면에서 1990 년대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 발전 준비에 필요한 후속능력을 강화한다. ③생산발전과 경 제효익 제고의 기초위에, 도농(城乡) 인민생활을 계속 개선한다.
- ‘7·5계획’시기는 중공12대가 제출한 20세기말 “공농업총생산액 4배”, “이전 10년 기초구 축” 전략배치를 실현한 중요한 시기이고, 또한, 신구체제 궤도전환과정중 양종체제가 병 존하고, 동시에 격렬하게 충돌한 시기이다.
- ‘7·5계획’시기 중국내 경제과열과 중국정부가 과열극복을 위해 채택한 거시조정조치는 과도시기의 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수십년간 이론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계획과 시

장의 싸움이 막바지 사생결단의 시기에 도달한 듯이 보였다. 경제체제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체제 틀과 국민경제은행기제에 중대 변화가 발생했고, 시장경제로의 개혁 방향은 이미 역전이 불가능한 경계선을 넘었다.

- ‘7·5계획’후기의 치리정돈(治理整顿)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경제발전과 계획목표의 기본적 완성을 보장했다. GDP 연평균 증가율 7.9%이고, 최고 해에 11.6%, 최저 해에 3.8%였다.

['7·5계획' 시기, '물가돌파' 좌절]

1988년 8월 15일에서 17일까지, 중공중앙정치국 제10차 전체회의가 여름휴양지인 허베이성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열리고, “가격, 임금 개혁에 관한 초보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원칙상 통과시켰다. 이 “초보방안”은 절대다수 상품가격 규제를 풀고, 시장을 통해서 조절한다고 밝혔다.

8월 19일 새벽, 이 소식이 방송을 통해서 나가자, 중국 각지에서 사재기 행위가 출현했다. 어떤 사람은 한번에 소금 200kg을 샀고, 성냥 500상자를 샀다. 상점은 순식간에 텅 비었다. 은행에도 예금 인출객들이 줄을 섰고, 제 때에 지불하지 못한 어느 지방은행에서는, 군중이 분노하여 창구 문턱을 밀어 무너뜨렸다.

인민군중의 물가상승에 대한 이처럼 민감한 반응은, 중국정부의 가격돌파(價格闯关) 추진계획을 좌절시켰다. 중공중앙은 정책을 다시 검토 조정하고, 원 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7·5계획' 시기 어록]

“중국의 개혁은 ‘다섯 관문을 지나고 여섯 장수를 베어야 한다. 물가 개혁은 위험이 매우 크다. 단, 안할 수 없다. 위험과 곤란을 안고서” (邓小平, 1988. 5. 19, 인민대회당에서 북한(朝鮮)정부 군사대표단 접견 시)

“왜 시장 이야기만 하면 바로 자본주의라 하는가, 계획만 있는 게 사회주의인가? 계획과 시장은 모두 방법일 뿐이고,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 점이 있으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邓小平, 1987. 2)

“현재 우리의 문제는 통화팽창이다. 물가상승이 너무 빨라서, 국가와

인민 모두에게 곤란을 가져왔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주의하고 있고, 2년 또는 더욱 많은 시간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우리의 경험은, 발전이 순조로울 때에 출현하는 새로운 문제를 보아야 하고, 발전은 걱정해야 한다. 경제가 과열되면 쉽게 문제가 발생한다. 총괄하면, 모든 정책 제정은 실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邓小平, 1989. 3)

● ‘8·5계획’ (八五計劃: 1991~1995)

- 1991년 3월,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서 국무원이 제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0년 계획(规划)과 제8차5개년계획(八五計劃: 1991~1995) 강요에 관한 보고’가 심의, 통과 되었다.
- ‘8·5계획 (八五計劃: 1991~1995)’은 1980년대 국민경제의 고속성장과 경제환경에 대한 치리정돈(治理整顿)의 배경 하에, 최초로 6%내외의 ‘중속 성장’ 유지를 요구했고, 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이 상호결합된 경제체제 건립을 구상했다.
- 1990년 ‘8·5계획’ 수립을 시작한 때, 중국은 3년이 소요된 경제에 대한 전면적 치리정돈(治理整顿) 시기였고, 6.4 천안문 사태 이후, 서방의 주요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경제제재를 시행하고 있던 시기였다.
- ‘8·5계획’ 수립 당시 중국정부가 고민한 두 개의 문제는 발전속도와 계획과 시장의 관계를 여하히 설정할 것인가? 였다. 첫째, 발전속도문제에 관해 당시 87세의 고령으로 일선에서는 물러난 덩샤오핑이 중앙의 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정을 강조하는 것은 맞다. 단, 과하게 강조하면 시기를 잃을 수 있다.” 둘째, 계획과 시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1987년 개최된 중공 13차 대회에서, “계획이 시장을 통제하고, 시장이 기업을 인도한다”는 “사회주의시장경제”와 큰 차이 없는 표현으로 제출되었고, 2년 후에도 중공중앙은 “계획경제와 시장조절의 상호 결합”이란 표현을 유지했다.
- 저우자화(邹家华), 당시 국무원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곤란을 심각하게 생각하여, 실패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계획 결정 시, 여지를 충분히 남겨야 하고, 계획은 약간 작게 수립해야 한다.”
- 단, 1992년 덩샤오핑이 광둥성의 경제특구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등지를 순시하던 중(南巡), 선전에서 주하이로 배를 타고 가던 한시간 동안 아래와 같은 요지의 말을 했다.(소위 ‘南巡谈话’이다.) “혁명은 생산력 해방이다. 개혁도 생산력 해방이다.”, “개혁개

방은 보다 대담하게 해야 한다.”, 심지어 “우리는 잘 사는 사회주의를 원한다. 가난한 사회주의는 필요없다.”라고도 했다.

-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가?, 사회주의 국가의 종합국력 증강에 유리한가?, 인민생활수준 제고에 유리한가?, 이 ‘3개 유리(3個有利)’에 대한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계획이 좀 많은가 아니면 시장이 좀 많은가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 구분은 아니다.” 등등.
- ‘8·5계획(1991~1995)’ 기간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가장 빠르게 추진된 시기이고, 사회주의시장경제목표를 확립하고, 총체적 개방의 틀을 형성했다. 연평균 GDP 증가율 12%로, 동기간 세계 각국중 가장 높았고, 또한 신중국 출범 이래 최고였고, 파동이 가장 작은 시기였다.
- ‘8·5계획’ 기간에, 1차산업생산액은 연평균 4.1% 증가, 2차산업은 17.3% 증가, 3차산업은 9.5% 증가했다. 1, 2, 3차 산업의 생산액비중이 ‘6·5계획’말기의 28.4: 43.1: 28.5에서 ‘7·5계획’말기에는 27.1: 41.6: 31.3로, ‘8·5계획’말기에는 20.3: 47.7: 32.0이 되었다. 또한, 경제체제개혁에도 돌파성 진전이 있었다. 분세제(分稅制)를 핵심으로 하는 신재정체제, 증치세(增殖稅)를 주체로 하는 신세제(新稅制)가 기본적으로 건립되었고 정상 운영되었다.
- ‘8·5계획’은 신중국 성립이래 가장 양호하게 집행된 5개년 계획중의 하나이고, 각 방면에서 매우 큰 성과를 취득했다. GDP 2배 증가목표를 5년 앞당겨 실현했고, 경제체제개혁에서도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 국민경제의 시장화, 사회화 정도도 뚜렷하게 제고되었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가 점진적으로 건립되었다.
- ‘8·5계획’기간중 주요문제는, 경영관리가 비교적 조방적이었고, 경제소질이 높지 않았고, 경제효익이 비교적 낮았다. 농업기초가 박약했고, 인구증가, 생활개선, 그리고 경제발전 수요에 적응하지 못했다. 국유기업의 생산경영곤란문제가 비교적 많았고, 관리체제와 경영기제가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했다. 경제의 고속성장과 경제체제전환과정 중 통화팽창압력이 여전히 컸다. 국가재력이 부족했고, 거시조정능력이 부족했다. 지역간 발전격차가 확대되었고, 사회성원간에 소득차이가 현저했다. 부패현상이 늘었고, 정신문명과 민주법제 건설 방면 등에서도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했다.

['8 · 5계획' 어록]

개혁개방은 대담하게 해야 하고, 과감하게 시험해야 한다. 전족한 여인이 작은 발로 건듯이 갈 수는 없다. 정확히 보았으면, 대담하게 시도하고 대담하게 돌진해야 한다.

개혁개방이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고, 대담하게 돌진하지 못하고 있고, 자본주의적 물건이 많아서 두렵다거나, 자본주의 길을 간다는 등 말만 하고 있다. 성(姓)이 자본주의 “자(资)” 씨냐 아니면 사회주의 “사(社)” 씨냐는 핵심문제가 아니다. 응당 사회주의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유리(有利)한가, 사회주의국가의 종합국력 증강에 유리한가, 인민생활수준 제고에 유리한가 여부가, 즉, “3개 유리(有利)”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계획이 좀 더 많으냐 아니면 시장이 좀 더 많으냐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 구별은 아니다. 계획경제가 곧 사회주의와 같은 건 아니다. 자본주의도 계획이 있다. 시장경제가 곧 자본주의도 아니다.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 계획과 시장은 모두 경제수단일 뿐이다.

저속도는 멈춤과 같고, 심지어 후퇴와 같다. 기회를 움켜쥐어야 한다. 현재가 바로 좋은 기회이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기회를 잃는 것이다. 잡지 않으면, 보이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고, 시간은 순식간에 가버린다. (邓小平, 1992. 1.18~2.21, 남순강화 기간에)

● '9 · 5계획' (九五計劃: 1996~2000)

- 1995년 9월 28일, 중공14기5중전회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9 · 5계획'과 2010년 장기(远景)목표에 관한 건의'가 통과되었다. 계획 기간은 1996~2000년이다.
- '9 · 5계획'시기, 중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이 당면한 국내외환경은, 국제적으로는 세계화 추세가 진일보 강화되었고, 1997년 시작된 태국발 금융위기가 신속하게 아시아 전체로 확대되어, 중국의 수출, 외자이용, 경제성장에 비교적 큰 충격을 주었다.
- 중국 국내에서는, '9 · 5계획'전기에, 과도하게 높은 통화팽창률 억제를 거시조정의 우선적 임무로 정했다. 종합치리(綜合治理)를 통해서, 통화팽창을 유효하게 통제했고, 수요과열 국면을 교정했고, 국민경제의 순조로운 연착륙을 실현했다. 또한, 유효수요 부족이 발생한 '9 · 5계획' 후기에는, 적시에 투자증대, 소비진작 등 조치를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적, 고속도, 건강한 발전을 실현했다.

- ‘9·5계획’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주요 목표는, “현대화 건설의 제 2보” 전략배치를 전면 완성. 2000년, 중국인구가 1980년 대비 3억인 내외 증가한다는 전제 하에 1인당 GDP를 1980년 대비 4배로 증가를 실현한다. 빈곤현상을 기본적으로 제거하고, 인민생활을 소강(小康)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현대기업제도 건설을 가속화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초보적으로 건립한다. 등이다. 또한, 2010년 장기(远景)목표로, GDP를 2000년의 2배로 늘리고, 보다 풍요로운 인민의 소강생활(小康生活)을 실현하고, 비교적 완비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형성한다고 설정했다.
- ‘9·5계획’전기(前期)에, 통화팽창률이 과도하게 높은 문제에 대응하여, 통화팽창 억제를 거시조정의 우선적인 임무로 했다. 종합적인 조치를 통해서 통화팽창을 유효하게 통제했고, 수요과열 국면도 전환했고, 국민경제의 연착륙에 성공했다. 또한, 후기에는, 유효수요 부족현상이 출현했으나, 제 때에 투자증가, 소비촉진 등 조치를 통해서 국민경제의 지속적이고 빠른 발전을 실현했다.
-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초보 건립했다. 전방위 대외개방 틀을 기본적으로 형성했고, 개방형 경제가 신속 발전했고, 세계무역조직(WTO) 가입을 추진했다. 홍콩, 마카오가 순조롭게 귀속되었다.
- ‘9·5계획’기간에, 중국경제와 사회는 전면적으로 발전했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제 2보 전략목표를 순조롭게 완성했고, 1997년에 목표연도보다 3년 앞당겨 “GDP, 1980년의 4배 달성” 목표를 실현했고, 인민생활이 총체적으로 소강수준에 도달했고, 제3보 전략목표를 진일보 실현하기 위한 양호한 기초를 구축했다.
- 체제개혁 방면에서는, 비공유제경제를 진일보 발전시켰고, 국유기업 개혁에도 진전이 있었다. 자원배치중 시장의 기초적 역할이 현저하게 증강되었다. 단, 재산권제도, 정부관리체제 개혁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었고, 요소시장 “쌍궤제(双軌制)”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졌고, 수입분배제도 개선도 미흡했다.
- 거시경제 조정정책 방면에서는, 정책결정자가 제 때에 경제형세의 변화에 근거해, 거시경제정책 추세와 강도를 조정했고, 또한 내수확대와 경제구조 조정간 긴밀결합을 중시했고, 동시에 거시규제의 예측성과 지도성을 강화했다.

['9·5계획' 시기 어록]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가 여부는 고래로 혁명과 건설 흥망성쇠와 관계된 큰 문제이다. 과거에 우리는 중요한 역사기회를 움켜 쥐었고, 또한 어

떤 기회는 상실했었다. 현재 전당(全黨)은 필히 크게 자각하고, 세기가 만나는 역사적 기회를 굳건하게 움켜 쥐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이 시기에, 비교적 완비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쾌속 건강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필히 해결해야 할 양대 과제이다. (江泽民, 1997. 9)

앞에 지뢰밭이 있건, 깊은 연못이 있건, 나는 용감하게 앞으로 갈 것이다. 정의를 위해 뒤돌아 보지 않고, 신중하게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의 관을 미리 준비해 놓고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朱镕基, 1998. 3)

● ‘10·5계획’ (十五計劃: 2001~2005)

- 2001년 3월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0차 5개년계획강요’가 비준되었다.
- ‘10·5계획 (十五計劃: 2001~2005)’ 수립의 배경이 된 주요 성과와 문제는 다음과 같다. 중국경제는 고속발전을 달성했고, 소강사회(小康社會) 전면 건설의 신시기에 진입했다. 단, 아직 저수준의 소강(小康)이고, 전면적이지도 않고, 부분적으로 불균형 발전한 소강이다. 또한, 3농문제, 실업문제, 자원부족, 국유기업 개혁(또는 시장퇴출)의 어려움, 도농간, 지역간 발전격차와 사회구성원간 수입 격차 증대, 환경오염, 그리고, 특히 농촌토지징용, 철거, 병원치료난(看病難) 등 군중이익과 연관된 돌출문제 등이 중국사회에 적지 않은 압력을 주고 있다.
- ‘10·5계획’의 특징은, 정부가 더 이상 자원배치의 주인공이 아니고, 시장이 자원배치의 기초적 역할을 발휘토록 한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총체적 지령 성격을 갖지 않는 대략적(粗线条的) 계획으로 되었다. 동시에, 사회주의시장경제 발전의 수요에 따라, 경제구조에 대한 전략성 조정을 계획의 주선(主线)으로 확립했고, 생태건설, 환경보호,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더욱 중시했다. 교육, 문화, 의료위생, 체육 등 각 사회사업 항목을 더욱 중시했고, 경제와 사회의 협조발전을 더욱 중시하여, 발전의 향유에 대한 광대한 인민군중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 ‘10·5계획’의 주요 지표: 경제증장속도 기대치는 연평균 7% 내외였으나, 2005년 2000년 가격으로 계산한 GDP는 약 12조 5천억 위안이고, 1인당 GDP는 9400위안(元)에 달한다. 5년간 도시(城镇) 신규 증가 취업자수와 전이 농업노동력이 각각 4000만명에 달하

고, 도시登記실업율을 5%내외로 통제한다. 과학기술, 교육발전 분야에서는, 2005년 전 사회 연구개발 경비의 GDP비중을 1.5% 이상으로 제고하고, 과학기술 창신능력을 증강하고, 기술진보를 강화한다. 각급 각종류의 교육발전을 가속화하고, 9년 의무교육 보급 성과를 진일보 공고히 하고, 중학교(初中) 총입학률 90% 이상 도달, 고등학교(高中)단계 교육 60%내외, 대학 총입학율 15%내외로 한다.

- 인구자연증가율을 9%이내로 통제하고, 2005년 전국총인구를 13.3억명 이내로 통제한다. 인민생활수준 제고를 위한 주요 전망목표는, 주민생활의 질을 비교적 대폭으로 제고하고, 기본공공서비스를 비교적 완비토록 한다.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수입과 농촌주민 1인당 순수입 연평균 증가율 5%내외, 2005년 도시주민 1인당 주택건축면적을 22㎡까지 증가시키고, 전국 유선TV 가입세대비율 40% 도달을 목표로 한다.
- ‘10·5계획(2001~2005)’ 기간은 새로운 세기가 시작이다. 21세기 국민경제의 건강, 고속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노력한다. 첫째, 중공 15차전국대표대회(1997)와 중공16차전국대표대회(2002)에서 채택·발표한 “신3보” 발전전략을 실현한다. 즉, 2001~2010년 기간에 GDP를 두 배로 증대, 2011~2020년 기간에 또 다시 두 배로 증대시키고, 소강사회(小康社会) 전면 건설 목표를 실현하고, 2021~2050년 기간에는 경제총량을 다시 두 배에 가깝게 증대시키고,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둘째, 근본적으로 조방형 경제발전방식을 개변(改變)하고, 과학기술 진보와 관리화, 산업구조 승급(升级),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 제고, 자원의 영속이용과 생태보호, 지구(地区)내 도농(城乡) 협조발전과 사회 전면 진보에 중점을 둔다.

【‘10·5계획’ 시기 어록】

21세기 초기 20년은, 우리가 필히 굳게 움켜지고, 동시에 크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기회 시기이다. 우리는 이번 세기 초기 20년 기간에, 역량을 집중하여, 십수억 인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보다 높은 수준의 소강사회(小康社会)를 전면 건설하고,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민주를 더욱 건전하게 하고, 과학교육을 더욱 진보시키고, 문화를 더욱 번영시키고, 사회를 더욱 조화(和諧)시키고, 인민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해야 한다. (江泽民, 2002.11)

각급 당위원회, 정부와 영도(领导)간부들은 모두 과학발전관과 정확한 정적관(政绩观)을 자각적으로 수립 및 구체화하고, 과학규율에 따라 큰

계획으로 발전 추구토록 견지해야 한다. 모든 과학발전관에 부합하는 사안에는 다가가 전력으로 추진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도 추호의 주저없이 개혁해야 한다. 진정으로 발전을 촉진하는 각 항 공작은 모두 역사와 인민의 검증을 거쳐낼 수 있다. (胡锦涛, 2004. 3)

● ‘11·5계획’ (十一五规划 : 2006~2010)

- 2006년 3월 14일,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에서, ‘중공중앙 11·5계획(规划) 제정에 관한 건의(全文)’가 표결, 통과되고, 계획(规划) 강요가 비준되었다.
- 강요(纲要)는 14개 편으로 구성되었다. 즉, 지도원칙과 발전목표,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공업구조 특화 승급(升级) 추진; 서비스업 발전 가속화, 구역협조발전 촉진, 자원절약형·환경우호형 사회 건설, 과학교육흥국전략과 인재강국전략 실시, 체제개혁 심화, 상호공통이익 개방전략 실시, 사회주의 조화사회(和谐社会) 건설 추진, 사회주의민주정치 건설 강화, 사회주의문화건설 강화, 국방과 군대 건설 강화, 건전한 계획실시기제(规划实施机制) 건립.
- ‘11·5규획十一五规划: 2006~2010’에서는 그 명칭이 ‘계획(計劃)’이 ‘규획(规划)’으로 바뀌었다. 그 이전의 10차까지는 모두 “5개년 계획(計劃)”이었다.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계획(計劃)’에서 ‘규획(规划)’으로 바뀌었다. 즉, 구체적, 미시적, 지표성 산업발전 계획(計劃)에서 거시적 국가공간 규획(规划)으로 바뀌었다.
- ‘11·5규획(规划)의 특징중 하나는, 최초로 민간의 사상을 구하는 시도를 했다고 할 수 있다. 학자와 전문가만이 제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2006년 양회(两会) 전인, 2월 6일~10일 사이에, 원자바오(温家宝)총리가 4차례 좌담회를 주재하고, 직접 각 방면에서 ‘규획강요(초안)’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청취했다. 기층(基层)에서 온 농민, 노동자, 의료종사자, 과학기술종사자들이, 중난하이(中南海)에 들어와서 총리와 면대면 교류하였고, 많은 의견을 제출했다.
- 이외에, 중국개혁개방발전 사상노선(思路)중 20여년간 중요 명제였던 “선부론(先富论)”이 ‘11·5계획’에서는 “공동부유” 기조로 바뀌었다.
- 조화사회(和谐社会) 구축과 인민생활수준 개선 방면에서 새로운 진전을 취득하는 것을 ‘11·5계획’의 출발점 및 발판으로 했다. 예를 들면, 과거 20~30년 기간에는 발전을 중심 임무로 하고, 최우선 순위에 놓았으나, 향후에 진일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왜 발전해야

하는가?, 무엇에 의지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등이었다. 이를 위해서, '11·5계획(规划) 강요(纲要)에서 아국 경제성장방식 전변의 기본정책을 제시하였다.

- 당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마카이(马凯)는 6개 전변(转变)의 실현으로 표현했다.
- 첫째 전변(转变)은 국내수요 확대, 특히 소비수요 확대를 기본출발점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투자와 수출 견인에 의지하는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소비와 투자, 내수와 외수(外需)가 협조·견인하는 경제성장방식으로 전변(转变)한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투자와 수출에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고, 국내소비수요의 경제성장 견인작용이 강하지 않은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통계수치가 보여 주듯이, '10·5계획' 기간에, 아국 경제성장이 매우 높았다. 단, 주로 투자와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들은 단시日内 비교적 빠른 성장을 취득할 수는 있으나, 더욱 조방(粗放)적인 성장방식을 조장하기 쉽고, 또한 경제성장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 둘째, 경제구조 조정을 주선(主线)으로 하고, 경제성장을 주로 공업과 수량확장 대동에 의지하는 상태에서부터, 기타 산업과 구조특화와 대동토록 전변(转变)을 촉진한다. 이것은 중국의 산업구조가 불합리한 현황을 겨냥한 것이다. '11·5규획(规划)시기에, 국가는 "3농(三农)"문제 해결을 각 항 전략임무의 최우선 위치에 놓고, 도농(城乡) 경제사회 통합발전의 기본방략을 견지하고, 도시화를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에 중점을 두고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 셋째, 성장방식 전변(转变) 촉진에 중점을 두고, 경제성장이 주로 자원투입 증가 대동효과에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자원이용률 제고 대동효과로 전변토록 촉진한다. 이것은 중국의 자원부족, 생태환경취약, 경제성장과 자원환경 간의 모순이 갈수록 돌출되는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 넷째, 자주창신능력 증강을 국가전략으로 하고, 주로 자금과 물질요소 투입 대동에 의지하는 경제성장을, 과학기술 진보와 인력자본 대동에 의지하는 방향으로 전변토록 촉진한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중 과학기술병목과 인재병목 제약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 다섯, 개혁개방을 동력으로 하여, 경제성장을 특정 영역에서 상당정도 행정개입에 의존하여 추동하는 방식으로부터, 국가가 거시조정 하에 더욱 큰 정도로 시장이 자원배치는 기초적 역할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전변토록 촉진한다. 이것은 체제·기제 병목이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 여섯, 인민생활수준 제고를 근본 출발점과 발판으로 하고, 물질 재부(财富) 증가에 편중

한 발전을, 인간의 전면 발전과 경제사회의 협조발전 촉진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킨다. 이것은 발전과정중 경제총량 확장을 과도하게 중시하고, 지역간, 도농간, 경제와 사회발전 간에 존재하는 불협조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11·5계획' 시기 어록]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서 계속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추진해야 하고, 철저히 개혁 심화와 개방 확대에 의지해야 한다. 추후의 동요없이 개혁 방향을 견지해야 하고, 개혁의 결심과 신심(信心)을 더욱 확고하게 견지해야 한다. (胡锦涛, 2006. 3)

우리 국가와 민족이 새로운 역사적 기점에 서있고, 새로운 임무에 직면해 있으므로, 더욱 정신 차리고, 더욱 결연히 노력해야 한다.

위기(危)의 원인을 고민하면 그게 안전(安)이고, 혼란(亂)의 원인을 고민하면 그게 치리(治)이고, 멸망(亡)의 원인을 고민하면 그게 즉 생존(存)이다. 전진 중엔 언제나 곤란이 있으나, 멈출 수 없다. 후퇴하면 출로가 없다. (温家宝, 2006.3)

● '12·5계획' (十二五规划: 2011~2015)

-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년(2011~2015년) 계획강요)는 '중공중앙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5년계획(规划) 제정에 관한 건의'에 근거하여 수립했다.
- '12·5계획'은 주로 국가전략의도를 명백히 밝히고, 정부의 업무중점을 명확히 하고, 시장주체행위를 인도하는, 향후 5년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웅대한 청사진이고, 전국 각 민족과 인민 공동의 행동강령이고, 정부가 경제조절, 시장 감독관리, 사회관리 및 공공서비스직책을 이행하는 중요한 의거이다.
- 16편 62장으로 구성된 '12·5계획'의 각 편별 장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제1편 방식 전변(转变) 과학발전 신국면 창설

- 환경발전, 사상지도, 주요목표, 정책지향

◆ 제2편 강농혜농(强农惠农), 사회주의 신농촌 조속히 건설

- 현대농업 발전 가속화, 농민 수입증대 통로(渠道) 확장, 농촌생산생활조건 개선, 농촌발

전체제기제 완비.

◆ 제3편 전형승급(转型升级) 산업핵심경쟁력 제고

- 제조업 개조 승급, 전략성 신흥산업 배양육성 발전, 에너지 생산과 이용방식 변혁 추동, 종합교통운수체계 구축, 정보화 수준 전면 제고, 해양경제발전 추진, 서비스업 대발전 추동 환경 조성, 생산성 서비스업 조속 발전, 생활성 서비스업 적극 발전, 서비스업 발전에 유리한 배경 조성

◆ 제5편 구조(格局) 특화 구역협조발전과 도시화 건강발전 촉진

- 구역발전총체전략 실시, 주체기능구전략 실시, 적극적 안정적 도시화 추진

◆ 제6편 녹색발전 자원절약형, 환경우호형 사회 건설

- 지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자원절약과 관리 강화, 순환경제 적극 발전, 환경보호강도 증대, 생태보호와 수복 촉진, 수리와 방재감재체계 건설 강화,

◆ 제7편 창신 구동 과학교육 흥국전략과 인재강국전략 실시

- 과학기술 창신능력 증강, 교육개혁발전 가속화, 거대한 고소질 인재대오 육성

◆ 제8편 민생 개선 건전기본공공서비스체계 건립

- 기본공공복무수준 제고, 취업우선전략 실시, 수입분배관계 합리조정, 도농(城乡)주민의 사회보장체계 완비 및 확대, 기본의료위생제도 완선, 주택보장수준 제고, 인구업무 전면 양호 처리

◆ 제9편 표본겸치(标本兼治) 사회관리 강화 및 창신

- 사회관리체계 창신, 도농 사구(社区) 자치와 복무기능 강화, 사회조직건설 강화, 군중권익기제 완선 및 보호, 공공안전체계 건설 강화

◆ 제10편 전승창신, 문화 대발전 대번영 추동

- 전민족 문명소질 제고, 문화창신 추진,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번영발전

◆ 제11편 개혁 공격돌파(攻坚),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완선

- 기본경제제도 견지 및 완선, 행정체제개혁 추진, 재세체제개혁 가속화, 금융체제개혁 심화, 심화자원성 상품 가격과 환경보호 비용징수 개혁 심화,

◆ 제12편 상호이익 공동승리(互利共赢) 대외개방수준 제고

- 구역개방 틀 완선, 대외무역구조 특화, “유치(引进来)”와 “진출(走出去)” 통합(统筹), 전지구 경제 처리(治理)와 구역합작에 적극 참여

◆ 제13편 민주발전 사회주의 정치문명 건설 추진

-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 법제건설 전면추진, 반부패 청렴제창 건설 강화

◆ 제14편 심화 합작 중화민족 공동 정원(家园) 건설

- 홍콩, 마카오 장기번영안정 보호유지, 양안관계와 평화발전과 조국통일대업 추진

◆ 제15편 군민융합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 강화

- 국방과 군대 현대화 건설 강화, 군민 융합식 발전 추진,

◆ 제16편 실시 강화 웅대한 발전 청사진 실현

- 계획(规划) 실시와 평가기제 완성, (제62장)계획(规划)협조관리 강화

● ‘12·5규획’ 제정 과정

- ‘12·5규획’의 제정과정은, 대체로 아래와 같이 상호연접된 11개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1) ‘11·5계획(规划)’ 중기 평가(2008.3~2008.12)

- 2008년 3월,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가 ‘11·5계획(规划)’ 중가(中期)평가를 조직 진행했다. 중기 평가는 “국가‘11·5규획강요(纲要)”제48장에 처음으로 규정된 중요 절차로서, 하나의 민주적인 과정이다. 평가과정은 우선 3개 유형의 주제의 평가를 포함한다. 각 부문과 위원회가 본부문의 ‘11·5계획 부문계획(专项规划) 실시정황에 대한 평가를 조직 실시하고, 지방 각급정부(주로 省급)도 모두 본급정부의 ‘11·5규획(规划)’ 실시현황에 대한 평가를 조직 실시하고, 제3방이 독립 평가한다.
- 이중, 제3방 독립평가는 새로 증설한 절차로서,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칭화(清华)대학 국정연구중심과 세계은행 주중국 사무소 3개 기구가 각 자의 시각과 독립적으로 분석한 평가보고를 제출하고, 객관적 비판의견을 포함하고, 동시에 각자 다음 단계 계획 실시의 정책건의를 제출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기초(起草)한 중기평가보고의 중요 참고가 되고, 공공정책 실시 평가의 전문화, 국제화 및 독립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체현한다. 이는 중국내에서 처음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처음이다.
- 동시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광범위하게 의견을 듣고, 기층에 들어가 실지조사를 하고, 설문조사, 설문조사, 좌담회 개최 등 형식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에 전문주제 보고를 했다.
- 충분한 민주의 기초위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각방의 의견을 모으고, “11·5규획 실시정황 중기평가보고” 초안을 기안하고, 2008년 12월 24일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주임 장평(张平)이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제6차회의에 보고했다. 동시에, 3자 독립평가보고 요약을 첨부했다. 이는 중국 5개년계획 특유의 학습기제를 반영한다.

‘11·5규획’ 실시기간이 절반을 지난 후, 외부와 자아평가를 통해서, 돌출문제를 적시에 발견하고, 적시에 해결방법을 제안하고, 적시에 “강요(綱要)”를 작성하는 것은, 다음 5개년 계획 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이다.

2) 전기연구(2008년말부터 2009년말까지)

- 이는 기초조사, 정보수집, 과제연구 및 중대 기획(規劃)항목 선정 및 포함에 대한 논증 등을 진행하는 전기(前期)업무를 포함한다.
- 중기평가의 기초위에, 2008년말에서 2009년초까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8대 영역 39개 제목을 포함하는 ‘12·5규획’ 전기 중대문제를 제출하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이중 60개 단위기구의 주제를 선정했고, 직접 위탁한 연구와 발개위계통 내부연구를 추가하고, 선정된 주제가 약 수백여개, 참여전문가 수천명, 연구인원이 1만인에 달했고, 수백만자의 연구보고를 형성했다.
- 상술한 연구성과는 ‘12·5규획 강요(綱要)’ 작성을 위해 직접 복무하며, “아래에서 위로(自下而上)” 추진하는 정책모델 제정에 해당한다. 이는 세계최대규모의 공공정책 “집체연구”, “밀집연구”, 그리고 “경쟁연구”이고, 국가가 재정투자하여 “공공정책결정 지식”을 구입하는 것이다.
- 동일한 중대한 제목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다수에 연구 위탁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여러사람의 좋은 의견과 생각을 수용하여 이익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면, 이중 가장 중요한 주제로 선정된, “12·5규획 총체사로(总体思路)와 목표연구”는, 국가정보중심,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거시경제연구원, 국가행정학원, 칭화대학 국정연구중심 4자가 독립연구를 위탁하고, 2009년 9~10월에 보고를 제출했다.
- 이 기초위에, 국가발개위가 각방의 연구성과를 흡수하여, ‘12·5규획’ 기본사로(基本思路)를 기안하고, ‘기본사로’ 초고를 작성한 후에,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가 전문가와 각부문의 의견수집을 시작한다. 각방의 수정의견에 근거해,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가 ‘기본사로’를 수정했다.

3) ‘기본사로’ 형성(2009. 12~2010. 2)

- 전기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국가발개위가 ‘기본사로(基本思路)’ 의견원고 초안을 작성하고, 각방면(각지구, 각부문 및 전문가) 의견을 구한 후, 당중앙과 국무원에 보고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기본사로’에 대해 토론하고, 정치인식을 공유한 후, 각방에 통

보하고, 통일된 인식으로 정치동원을 진행했다.

- 중국정부는 이를, “민주에서 집중으로 가는 한 과정이고, 사회범위내 민주에서 집중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어서, 다음단계의 “아래에서 위로” 가동하는 모델에 상응하는 민주와 분산을 시작했다. 일단 ‘기본사료’를 형성하고, 이후의 조사연구를 위해서, 각 방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당중앙에 제출할 건의(建议) 초안을 작성했다.

4) 건의초안 작성(2010년 2월~10월)

- 중공중앙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5개년규획 제정에 관한 건의(초안)”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직접 지도하에 제정되었다.
- 2010년 2월, 중공중앙은 리커창(李克强)이 조장을 맡는 ‘12·5규획’ 건의(建议)초안 작성 소조(小组)를 조직하고, 이 ‘소조’에 국무원연구실, 국가발전개혁위 및 각부문 인사를 참여시켰다. ‘소조’의 업무방식은 우선 주요 관련자료를 집중하고, 그후에 전문주제별 연구조를 구성하고, 각조별로 각지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했다. 이 기초위에서, ‘강요제안(提纲)’을 기안하고 심사 송부한다. 중앙 지도자의 ‘강요제안(提纲)’에 대한 지시와 각 방면의 의견에 근거하여, ‘초안소조’가 집중적인 작성작업을 시작하고, ‘건의(建议)’를 작성한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수차례 보고를 들었고, 중앙정치국이 ‘건의(建议)’에 대해 수차례 토론했다.
-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이후부터, 중앙정치국 9인의 상무위원과 기타위원들이 각자 자기 맡은 곳에서 전문주제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중앙영도자와 지방책임자가 직접 정보교류 및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고, 한편으론, “백문이 불여일견(百闻不如一见)”으로, 중앙지도자는 직접 1차정보를 획득하고, 1차자료를 이해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책임자는 그들의 실제요구와 구체적 건의를 직접 반영할 수 있고, 중대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
- 2010년 3월~9월 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 민주당파가 각자 전국 각지에서 ‘12·5규획’ 수립에 참여 전문주제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계획수립을 위한 자문을 제공했다. 이와 동시에, 각 단계의 초안소조(起草小组) 업무인원들이 더욱 자주 심도있는 조사연구를 통해 연구문제와 ‘사료(思路)’를 형성했다.
- 2009년말에서 2010년초까지,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가 동부, 서부, 중부 3개지구에서 전문주제 연구를 진행했고, 4개 지구별로 ‘12·5규획’ ‘사료(思路)’ 연구 지구별 회의를 개

최했다. (동북지구와 중부지구는 통합개최)

- ‘건의’ 형성과정은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이다. 첫째, 각 지방, 각 부문 당위원회(당조직), 당내 노동자, 그리고 당내 우수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전당(全党)의 지혜를 모은다. 둘째, 각 민주당파와 전국 공상련(工商联) 책임자, 무당파 인사 등의 당외 우수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사회의 지혜를 흡수하고, ‘건의’를 부단히 수정, 완비했다. 또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수차례 토론하고, 형성된 ‘건의’에 대한 토론원고를 중공17기5중전회에 정식 제출했다.

5) 건의 통과

- 2010년 10월, 중공17기5중전회(이하)가 정식 개최되었고, 국무원총리가 중앙정치국을 대표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 12차 5개년규획 건의 제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회의는 “중공중앙,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 12차 5개년규획 제정에 대한 건의”를 심의 및 통과시키고, 정식으로 대외에 공포했다. 당중앙의 ‘건의’는 국내외 형세를 분석하고, 중국의 기본국정과 발전단계에 근거하여, 규획(规划)의 경제사회 주요목표, 지도방침, 중요원칙, 중점전략과 주요임무를 제출하고, ‘12·5규획 강요(纲要)’ 제정을 위한 기초를 구축했다. 당시 중국정부는 이를, “당내 범위에서 민주에서 집중으로 가는 과정”이라 선전했다.

6) 강요(纲要) 제정

-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규획강요” 문건(2010. 10~2011. 2)
- ‘건의 초안’ 작성 기간에,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가 중공중앙의 ‘건의’ 초안작성업무에 참여했다. 중공중앙이 ‘건의’를 정식 공포한 후에, ‘강요(纲要)’ 초고를 작성했다. 또한 2010년 12월에 ‘전국개혁발전공작회의’에서, 각 지방, 부문, 업종협회와 함께 정보교류를 진행하고, 의견을 직접 청취했고, 이와 동시에 상이한 계획 간에 연결과 협조(协调) 작업을 진행했다.

7) 전문가 논증(2010. 10~2011. 1)

- 2005년 10월, 국무원이 규획수립과정에 전문가 논증제도 실시를 명문으로 규정했고, ‘국가발전규획전문가위원회’를 정식 설립하여, 37인의 경제계, 과학기술계, 기업계, 그리고 기타 저명한 전문가로 구성했다. 5개년 규획 초안 수립 후에,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가

수차례 ‘국가발전규획 전문가위원회’ 전문가를 조직하여 상세토론, 전문자문과 전문주제 논증을 진행하고, 또한 정식으로 국무원에 논증보고를 제출하고, 또한 ‘강요(纲要)’와 함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강요’ 심의를 위한 중요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8) 의견 수렴(争取)

- 국가비밀내용으로 규정된 것 외에, 규획수립부문은 응당 규획초안을 공포하고 또는 공청회(听证会)를 개최하고, 공중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홈페이지(门户网站)에 건의 정책제안 전문사이트 ‘정보플랫폼(信息平台)’을 개설하고, 인민군중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집하고, 의견을 반영했다.
- 동시에, 국무원이 개최하는 ‘12·5규획’ 좌담회를 통해서, 각 지구, 각 부문 지도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당중앙과 국무원 각 부문에 직접 서면으로 의견을 구하고, ‘원로동지(老同志) 좌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를 통해서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재정경제위원회, 전국정치협상회의 회의를 통해서 ‘강요(纲要)’ 보고를 듣고, 수정의견을 직접 제출했다. 또한, 국무원총리가 수차례 전문가, 기업가, 노동자, 농민 등 다방면의 좌담회 개최를 통해, 전국인민대표대회재정경제위원회 등을 통해서 ‘강요(초안)’에 대해 기초심사를 행하고, 각지구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를 조직하여 ‘강요(纲要)’를 사전심 의했고, 중공중앙이 민주당과 등 방면과 좌담회를 개최했다.
- 이 기초위에, ‘강요(纲要)’를 국무원 상무회의와 국무원전체회의에 제출, 심의하고,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중앙정치국회의에 제출 심사 확정하고, 형성한 ‘강요(초안)’을, 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 정식 제출·심의했다.(중국정부는 이것을 또 한차례 민주에서 집중으로 가는 과정이라 선전했다.)

9) 심의비준

- 2011년 3월, 국무원이 ‘강요(초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이어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에서, 국무원총리가 대회에 제출한 ‘정부공작보고’중 ‘강요(초안)’에 대해 설명했고, 전국인민대표와 전국정치협상회의 위원이 분임조토론을 하고 중요한 수정의견을 제출하고, 그 기초위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강요(纲要)’를 심의하고 정식 비준했다. (중국정부는 이를 “또 한번의 민주이고, 집중이고, 공공정책 합법화와 법률화”라고 선전했다.)

10) 정식 공포

-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 강요(綱要)”

11) 계획(規劃) 실시

- 계획 실시는, 계획수립의 최종목적이고, 어느 계획이건 최후에는 조직, 실시해야 한다. 시장경제조건하에서, 계획의 서로 다른 기능에 근거하여, 그 실시 기제(機制)를 창신(創新)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분류, 실시하는 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국무원은 직책분업에 의거하여, ‘강요(綱要)’가 제출한 주요 목표와 임무를 각 지구, 각 부문별로 분리 해석, 구체화하고, 구속성(約束性) 지표의 책임부문과 지구별 해석을 명확히 구분하고, 구속성 지표의 공보제도를 건립하고, 구속성 지표를 각지, 각 부문 경제사회발전종합평가와 성과평가에 포함시키고, 전국 범위에 조직 실시했다.
- 올해부터 시작되는 ‘13·5계획’(十三五规划: 2016~2020)은, 작년(2015년) 10월 26~29일 기간중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공 18기5중전회(18기중앙위원회 제5차전체회의)에서, ‘13·5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가 심의, 통과되었고, 11월 3일에 정식 공포되었다. 이 ‘건의’를 기초로 국무원이 ‘13·5계획 강요(綱要) 초안’을 작성하여, 올해 3월초 베이징에서 개최된 양회(兩會)기간중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했고, 올해 5월경에 정식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각 부문과 성(省), 직할시, 자치구를 포함한 각급 지방정부에서도 ‘13·5계획’ 수립작업이 진행중이다.

참고문헌 및 자료

中共中央黨校經濟學教研部編著. 2015.11. “十三五”規劃<建議>八講,人民出版社.

中共中央关于制定十三五规划的建议(全文), 新华社, 2015. 11.3.

山東省區域發展戰略推進辦公室홈페이지:<http://www.sdlb.gov.cn/col/col352/index.html>.

历届五年计划回顾, <http://www.chinadmd.com>, 2016. 1.6.

중국 지역별 정책 동향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
필위녕 · 박인성

- ▶ 리커창 총리가 밝힌 10대 중국 경제 신호
- ▶ 2016년 전국 양회 주요 이슈
- ▶ 16개 도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관련 규칙 개정
- ▶ 산둥성, 1인당 GRDP '1만 달러 선' 진입
- ▶ 중국 27개 성, 직할시 결혼과 출산 유가 기간 조정





리커창 총리가 밝힌 10대 중국 경제 신호

- 매년 3월초 개최되는 중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올해에는 3월 2일~3월 16일 기간 중에 개최됐다. 전국 양회가 폐막한 후에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국내외 기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자리에서 중국경제에 주는 주요 신호 10가지를 밝혔다.



〈그림 1〉 중국 국무원 총리 리커창의 기자회견 장면

- 신호1: 금융기관이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
 - 금융의 주요 임무는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이고 실물경제의 침체는 금융의 최대 위협이다. 작년에 중국 정부는 금리를 하락시키고 예금준비금을 하향조정 등 대책을 실시했고 실물경제의 융자 비용을 낮췄다. 금융기관은 실물경제의 발전을 지원해야 하고, 특히 소형(小微)기업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추진 대상이다.
- 신호2: 금융관리체제의 개혁과 보완
 - 주식시장,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의 본질은 시장이고 시장화와 법제화 개혁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다. 상황변화에 따라서 금융관리체제의 개혁과 보완이 필요하다.

● **신호3: 중국 경제 경착륙(硬着陸) 없음**

- 중국정부는 경제의 장기적 양호한 발전추세 유지를 자신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한다면 경제에 경착륙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개혁을 통해 시장에 더 큰 활력을 추진하고 인민의 무궁한 창조력을 촉발시켜서 중국경제의 하향압력을 억제할 수 있다.

● **신호4: 올해 선강통(深港通) 개통 예정**

- 중국은 이미 후강통(沪港通: 상하이와 홍콩 주식시장간 상호투자 제도)을 통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실천 속에서 중국과 홍콩의 주식시장 모두 발전했다. 중국 대륙 지역과 홍콩은 올해 선강통(선전(深圳)과 홍콩 주식시장간 상호투자 제도)을 개통하고자 긴밀하게 협상하고 있다.

● **신호5: 미국에 대(對)중국 투자 자격 부여 예정**

- 중국은 이미 미국의 제일 무역대상국이고 양국 간의 무역액이 약 56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중·미 양국의 공동이익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분쟁보다 양국의 상호이익 부분이 훨씬 큼을 의미한다. 양국 정부는 중미투자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투자 자격을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 정부도 중국의 대미 투자자격을 부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신호6: 과잉생산산업의 생산량 감소**

- 경제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할 것이다. 개혁과 발전은 서로 모순적인 것이 아니다. 중국정부는 구조개혁을 통해 시장의 활력을 유발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과잉생산산업의 생산량을 줄이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수많은 실업상태의 산업노동자에게 새로운 취업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신호7: 행정기구 간소화와 일부 권력의 하부 이관**

- 행정기구를 간소화하고 일부 권력의 하부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문제가 존재한

다면 대책을 강구하여 해결해야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 정부 부서의 기득권익을 줄여 나간다.

● **신호8: '신경제'의 발전**

- '신경제(新經濟)'를 발전시키는 것은 신동력을 육성하고 경제체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신경제'는 1차산업의 가족농장, 2차산업의 스마트제조와 3차산업의 전자상거래 등을 포함한다. '신경제'가 발전한다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형기업도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할 것이다.

● **신호9: 타이완 기업과 국민에 우대 정책 유지**

- 중국은 양안(兩岸: 대륙지역과 타이완지역) 경제무역 협력에 따라서 타이완에 유리한 조치들을 계속 시행할 것이다. 양안 간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9. 2 컨센서스(九二共識)"를 준수해야 한다. 양안 간 '하나의 중국' 원칙만 인정한다면 뭐든지 다 협상할 수 있다.

● **신호10: 조정할 수 있는 5대보험과 주택기금의 납부 기준**

- 5대보험(연금, 의료, 실업, 산재, 출산)과 주택기금의 납부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사회보장기금이 아직도 풍족하다. 지방정부가 국가의 규정을 준수한다면 더 큰 자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단계적으로 5대보험과 주택기금의 납부기준을 인하할 것이다.

● 중국정부는 상술한 10대 경제 신호를 통해 경제의 둔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세계경제의 확실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경제도 글로벌 경제에 깊이 융합되어서 불리한 외부경제환경 하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 九二共識 : 1992년 중국과 타이완 당국이 홍콩에서 만나 합의한 '공동인식'을 이른다. 양안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이다. "하나의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가 어디를 말하는 지는 각자 해석에 맡긴다.

2016년 전국 양회 주요 이슈

- 3월 2일~3월 16일 간 열린 중국 전국 양회에서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習近平)은 각 소속 대표단의 회의에 참석하여, 각 대표단위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시진핑이 제기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시주석의 토론 모습

- 이슈 1: 빈곤탈출
 - 중국 13차 5개년 계획시기(2016-2020)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건시기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한마음으로 빈곤탈출대책방안 관련 임무를 적극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 이슈 2: 녹색성장
 - 환경보호 측면에서 정부는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눈을 보호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연환경을 보호·관리해야 하고, 녹색환경정책의 도입을 통해 지역사회의 녹색성장방

식과 생활방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슈 3: 창의성

- 제조기업은 놓칠 수 없는 기회를 장악해야 하고 세계 최신 첨단기술에 도전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또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고, 이를 통해, 세계 기초과학분야에서 큰 업적을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슈 4: 새로운 정경관계

- 새로운 정경(政商)관계란 정부와 상인 간에 서로 친하고 깨끗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 부서와 각 지역이 실현 가능한 기준을 통해 정책을 모색해야 하며, 실행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이러한 정책을 통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이슈 5: 행정기구 간소화와 일부 권력의 하부 이관

- “보이지 않는 손”과 “보이는 손”을 모두 잘 활용해야 하고, 정부의 역할을 가속화하고 시장과 사회가 가지는 권리를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

● 이슈 6: 민족단결

- 중국 국내에서 각 민족의 풍습과 문화를 존중해야 하고 중화민족 내의 각 민족이 형제자매처럼 서로 도우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생활수준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정책들이 순조롭게 실행된다면 중국은 전면적인 소강(小康) 사회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6개 도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관련 규칙 개정

- 2016년 4월 1일부터 칭다오(靑島), 텐진(天津), 창춘(長春) 등 전국 16개 도시에서 새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규칙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새 규칙에서는 기능교육과 도로주행교육을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공부하지 않고 자기연습을 한 뒤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관련 삽화

- 이번 개정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즉, 자동차운전면허시험 각 응시과정을 편리하게 하고 일체화 시켰고, 인터넷 예약접수, 비용수납, 타지역 서류검사, 증서교환 등의 방법을 통해 자동차운전응시자에게 더욱 편리해진 서비스를 지원한다.
-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제한이 존재한다. 먼저, 응시자는 소형자동차 자격증의 자동면허증(한국의 2종 보통 면허에 상당)에만 시험을 볼 수 있다. 이후, 학과(필기)시험을 통과한 후에 자동차관리소로 가서 자동차학습 전용표기를 받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자동차학습 전용표기를 붙인 자동차에 신청자와 학습감독만 지정된 선로에서 지정된 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산동성, 1인당 GRDP '1만 달러 선' 진입

- 2015년 산동성의 1인당 GRDP(지역총생산)가 1만 달러를 넘었다. 2010년 산동성의 1인당 GRDP는 6천 달러에 불과했는데, 5년만에 거의 2배로 성장했다. 이로써, 중국내 31개 성(省)급 지방중 '1만 달러 선'에 진입한 곳은 10곳으로 늘어났다.
- 중국 각 지방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경제현황을 보면, 상하이시는 2008년 처음으로 1인당 GRDP가 1만 달러를 초과했고, 베이징은 2009년에, 톈진은 2010년에 각각 1만 달러선을 넘었다. 또한, 2012년에는 장쑤·저장·네이멍구 3개 성과 2014년에는 푸젠·광둥·랴오닝이 각각 '1만 달러 선'에 진입했다. 이제 동부 연해지구 성·직할시의 1인당 GRDP는 모두 1만 달러를 돌파했다.



〈그림 1〉 GDP 관련 삽화

- 1인당 GRDP는 1만 달러를 넘으면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 수준에 진입한 후 경제성장률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중국도 수십 년의 고속성장 후에 성장률이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 에너지와 중공업 위주의 지역경제발전은 단기적으로는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동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과거 계획 경제체제 하에서 중공업 분야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랴오닝성의 경우 경제규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지만 개혁개방 이후 7위로 하락했다가 작년에는 10위까지 밀려났다. 또한, 중국 북부지구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남부지구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 한편, 중국정부는 2015년의 경제성장률에 따라 2020년 GDP(국내총생산) 규모를 100조 위안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때 전국 평균 1인당 GDP는 1만 달러 선에 접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27개 성, 직할시 결혼과 출산 휴가 기간 조정

- 2016년 4월 23일 기준 중국 27개 성(省), 직할시(直轄市)가 결혼 및 출산 휴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각 성, 직할시의 조례에 따르면 원래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부부에게 부여하던 최대 1개월의 휴가 내용을 취소하고 3일~30일간의 법정휴가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국 중앙정부가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후에 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맞출 수 있도록 지역별 결혼과 출산 휴가 기간 규칙을 새롭게 조정한 것이다.
- 산둥성의 경우 원래 14일간의 결혼 휴가를 폐지하고, 3일간의 법정휴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자녀를 낳으면 산모에게 158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그녀의 남편에게는 동반 출산휴가를 15일간 부여한다.
- 장쑤(江蘇)성의 경우 원래 10일간의 결혼휴가가 13일간 휴가로 변경됐다. 출산할 때 산모에게 128일간의 휴가를 부여하고, 남편에게는 15일간 부여한다.
- 허베이성의 경우 원래 15일간의 결혼휴가가 18일간 법정휴가로 개정됐다. 출산휴가 규칙이 산둥성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됐다.
- 랴오닝의 경우 결혼휴가가 기존의 7일간에서 10일간으로 수정되었다. 출산휴가가 산둥과 허베이의 규칙과 일치한다.
- 27개 성, 직할시 중에서 11개 성, 직할시에서 결혼휴가 기간이 3일간 실시되고, 기타 성, 직할시가 10일간, 13일간, 15일간, 18일간, 30일간 실시된다. 대부분 성, 직할시의 출산휴가와 남편의 동반 출산휴가가 각각 158일간, 15일간으로 조정됐다.

- 중국 국무원 참사관 마리(馬力)는 각 성(省)별 인구정책을 지역경제와 사회발전 상황에 따라서 조정했다고 밝혔다.

〈표 1〉 성(省)별 결혼과 출산 휴가 현황

성별	결혼 휴가	늦은 결혼 휴가 (폐지)	출산 휴가	(남편)동반 출산 휴가
베이징	10일	7일	128일~7개월	15일
톈진	3일	7일	128일	7일
산둥	3일	14일	158일	7일
상하이	10일	7일	128일	10일
저장	3일	12일	128일	15일
안후이	3일	20일	158일	10일/20일
장시	3일	15일	158일	15일
푸젠	15일	15일	158일~180일	15일
광둥	3일	10일	128일	15일
광시	3일	12일	148일	25일
후베이	3일	15일	128일	15일
산시	30일	30일	158일	15일
닝샤	3일	15일	158일	25일
쓰촨	3일	20일	158일	20일
랴오닝	10일	7일	158일	15일
칭하이	15일	15일	158일	15일
허베이	18일	15일	158일	15일
장쑤	13일	10일	128일	15일
지린	15일	12일	158일/1년	15일
충칭	15일	10일	128일/자녀 1세	15일
윈난	18일	15일	158일	30일
후난	3일	12일	158일	20일
간수	30일	30일	158일	20일/25일
하이난	13일	10일	158일	15일
구이저우	13일	10일	158일	15일
네이멍구	18일	15일	158일	25일
헤이룽장	15일/25일	18일	180일	1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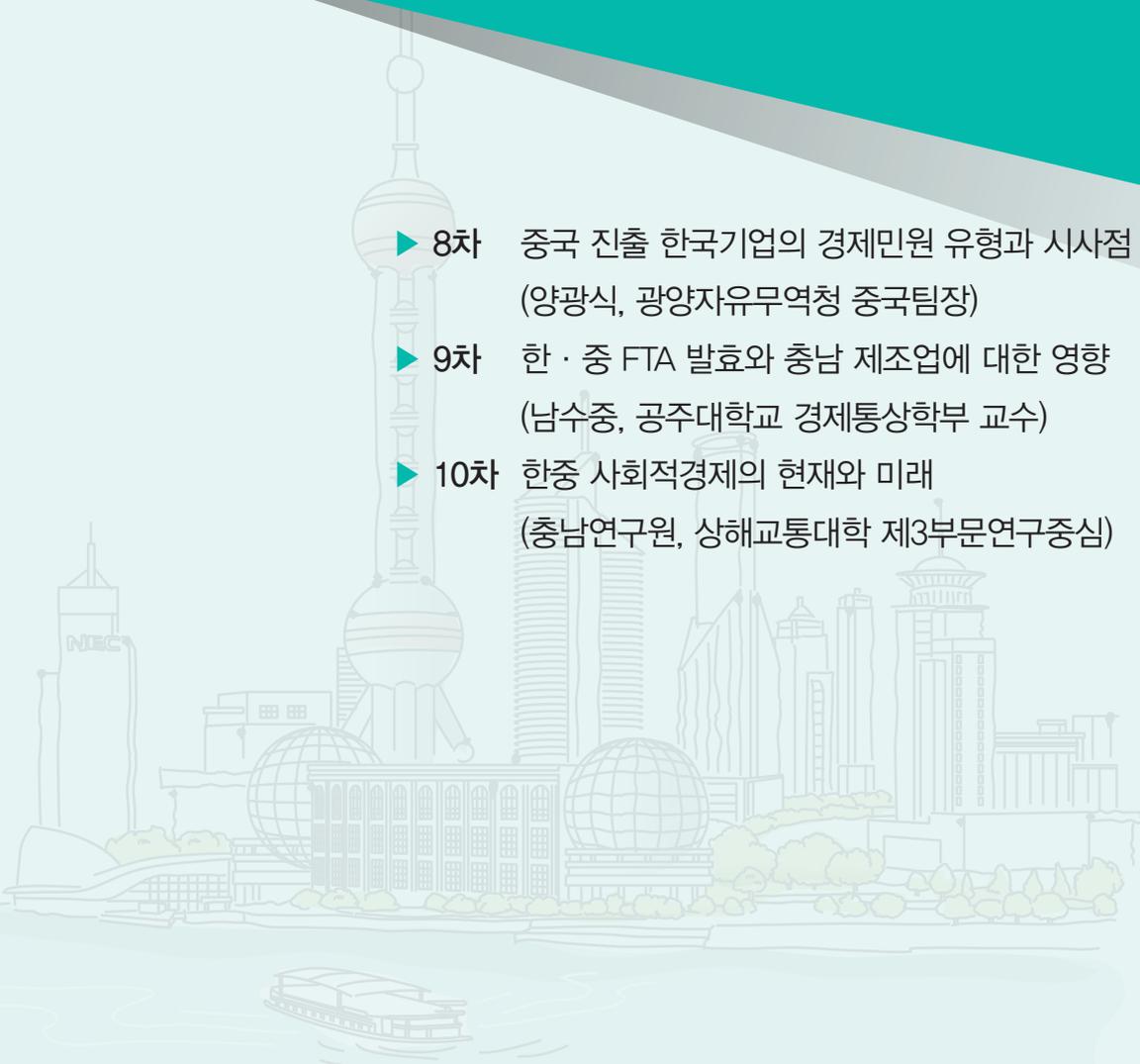
참고문헌

2016. 2. 3. 大众网. “山东进入“人均1万美元俱乐部” 全国已有10个”.
2016. 2. 5. 北京晨报. “16城市试点自学考驾照”.
2016. 3. 16. 南方财富网. “2016年两会热点解读:全国两会热词盘点”.
2016. 3. 17. 中国日报. “总理记者会释放的十大经济信号”.
2016. 4. 23. 中新网. “27省份修订计生条例 黑龙江参加婚检夫妻享25天婚假”.

충청중국포럼 소식

미래전략연구단 중국연구팀
필위녕 · 박인성

- ▶ 8차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제민원 유형과 시사점
(양광식, 광양자유무역청 중국팀장)
- ▶ 9차 한·중 FTA 발효와 충남 제조업에 대한 영향
(남수중,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 10차 한중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미래
(충남연구원, 상해교통대학 제3부문연구중심)



◆ 제 8차 충청중국포럼 개최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제민원 유형과 시사점

- 지난 2월 24일(수), 충남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 충남도 및 시·군 관련 공무원, 충청남도 상해사무소 이종민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 자유무역청 중국팀장 양광식 박사의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제민원 유형과 시사점’ 이란 제목으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 이번 포럼에서 양광식 박사는 사례를 통해서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제민원 유형을 소개했고 중국에 진출할 기업들의 국제분쟁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그림 1〉 양광식 팀장 강연 모습

- 한편,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발언에서, “충청중국포럼의 특성은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과 포럼 참여자들이 주로 충남도와 시·군의 중국 교류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심이라는 구성되어있다는 점” 이라면서, “이번 포럼이 충남도와 시·군에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양광식 박사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경제민원 분쟁 유형별로 다양한 사례를 언급하며 주요쟁점을 소개했다.

- 토지 및 임대차 분쟁의 경우, 반드시 출양권한이 있는 현급(縣級) 이상 토지관리부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시 반드시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 관련 조항을 명기해야 하고, 공장이전의 경우, 가능한 국유토지 상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해야 한다.
 - 노무분쟁의 경우, 공상사망이 발생하면 유가족의 실행행사에 직접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유족과 협상해야 하며, 해당 개발구(開發區)나 진(鎭)정부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는 한편, 공안(公安: 경찰)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신변안전에 대처해야 한다.
 - 환경문제의 경우, 회사 내부에 환경관련 전문가를 지정, 환경관련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조치 등 환경의식 강화가 필요하며, 재판관련의 경우,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와 능력있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면 승소할 수도 있다고 했다.
- 양광식 박사의 강의를 끝나고 진행된 토론에서, 심장보 당진시 대외협력팀 주무관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피해 사례들이 중국 전국이나 성(省)별 상황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지 질문했고, 양 박사는 중국 중앙정부의 투자정책이나 기업별 내부문제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했다.
 - 한편, 이번 포럼의 참가자들은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성공적인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 기업과 합작 형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 현지 기업이 보유한 유통망과 마케팅 능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 제8차 충청중국포럼 단체 사진

◆ 제 9차 충청중국포럼 개최

한·중 FTA 발효와 충남 제조업에 대한 영향

- 지난 3월 30일(수),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충남도 및 시·군 관련 공무원, 태안군 군의회 차윤선 의원, 세한대학교 환황해교류협력센터장 조이현 교수(前당진 시부시장), 민간단체인 ‘우리씨앗 농사협동조합’ 황진웅 사무국장, ‘도시텃밭연구소’ 서봉균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남수중 교수의 ‘한·중 FTA 발효와 충남 제조업에 대한 영향’이란 제목으로 제9차 충청중국포럼이 개최되었다.
- 이번 포럼 주제는 충남도 및 시·군 관련 공무원들의 한·중 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기획되었다.
- 이번 포럼에서 남수중 교수는 한·중 FTA체결의 의미와 주요내용을 소개한 후 충남 경제와 산업구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중 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고 한·중 FTA 발효에 대한 충남 주요 품목별 제조업의 대응전략과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그림 1〉 남수중 교수 강연 모습

- 한편, 충남연구원 미래연구팀장 홍원표 박사는 충남제조업의 대외무역 중에서 대(對)중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므로 충남 제조업의 발전추진을 위해 한·중 FTA에 관련 정보를 잘 파악해야 하고, 특히 당진시의 철강, 서산·대산의 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산업 업종에 대한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그 동안 한·중 FTA 발효가 충남지역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었는 바, 이번 포럼을 통해 충남지역의 대(對)중국 무역 특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충남의 무역의존도는 2013년 기준 36.8%로 수출 의존도가 수입 의존도보다 매우 높은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이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는 동시에 중국시장 비중이 상당히 높아 중국의 자급률 상승, 경쟁 격화, 수요 둔화 등에 대비하여 수출 품목과 수출 지역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 충남지역의 대(對)중국 무역은 대부분 일방적 무역(one way trade)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충남지역은 그동안 중국에 부품 및 소재를 공급하는 무역구조를 통해 상당한 혜택을 누려왔으나,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한중 분업구조 및 글로벌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새로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중 FTA 발효가 충남지역의 각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대응전략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을 도출했다.
 - 충남은 수출지역의 다변화뿐 아니라 수출품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한중 FTA 발효에 따른 지역 내 유망품목을 발굴·선정하고 이에 대한 중국시장 정보 수집, 마케팅, 판로 개척 등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지자체와 기업의 공조가 필요하다.
 - FTA 발효의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상품별·기업별 맞춤형 수출전략이 필요하다. 기업이 수출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각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단일 창구(예:무역장벽 신고

센터 등)를 마련해야 한다.

- 한중 FTA에 지역 간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충남도는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충남지역에 한중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

- 남수중 교수의 강연이 끝나고 진행된 토론에서, 구본현 당진시 정책개발담당관은 충남 당진시의 철강산업이 어떻게 맞춤형 대중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남 교수는 충남 당진에서 생산하는 철강 상품이 중국의 제품에 비해 차별화된 상품 이미지를 가져야 하는데, 이를 통해 상품의 품질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고부가가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답변 했다.
- 한편,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충남도 내 한·중산업단지 조성 추진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충남은 중국 동부연해지역과의 지리적 인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데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림 2〉 제9차 충청중국포럼 단체 사진

◆ 제 10차 충청중국포럼 개최 한·중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미래

- 지난 4월 20일(수),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 상해교통대학 쉬자량 교수, 루용빈 조교수와 유충식 연구원, 충남도 및 시·군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인 '세움' 김종수 이사, '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최선희 공동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사회적경제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제1차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가 개최됐다.
 - 이번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는 한중 간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발전 동향 비교와 교류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 중국 상해교통대학은 2015년, 한국 사회적경제의 대표적 선도 지역인 충청남도에 상호 교류를 제안했으며, 한중 사회적경제 분야의 학술적·정책적 성과 공유를 통해 상호 학습과 더불어 향후 사회적경제 협력 연구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했다.
- 한편,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충청남도는 광역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보다 앞서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 관련 이론과 정책을 선도해 왔고, 이 같은 노력과 결실들이 축적되어, 국내최초로 중국과 사회적 경제 관련 학술교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상해교통대 쉬자량 교수 발표내용에 의하면, 중국 사회적 기업의 발전은 해외로부터 도입되어 들어왔지만, 발전과정 중 자신의 특징을 보유했다. 그러나 일련의 문제 또한 지니고 있는 바, 가치이념, 거시정책, 그리고 실천행위 3개 분야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 역할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고, 실업, 취약계층 지원, 교육발전과 공정거래 등의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차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법률 측면에서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중국에서 소범위의 사회적 조직은, 민정(民政)부문에 등기한 사회단체, 민간비영리기관 등을 가리킨다. 중범위에는 사업단체, 시민위원회와 업종별 위원회가 포함되고, 대범위는 이들 외에 종교단체를 포함한다. 현재, 사회적 기업법인이 나타날 수 있는가 여부에 주목한다.
- 정부가 재무신청 및 보고제도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기본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윤분배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1〉 상해교통대학 제3부문연구중심 쉬자량 교수 주제 발표 모습

- 충남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박춘섭 센터장은, 충남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기업)의 사례 발표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기업)들이 이루어가는 사회혁신을 소개했다.
 - 가온길 원예조합은 5년전 시작한 가온길 영농조합법인 활동에서 출발했다. 설립시에는 46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했으나 170여명(2014년 말 현재)으로 증가했다. 가온길 원예조합의 주요 사업은 조합원이 출하한 상추, 토마토 등의 농산물을 전국 주요도매시장에 판매하는 것이다.
 - 도농더하기의 경우, 자연농법 양계농가들이 각자 브랜드가 아닌 ‘소소란’이라는 공동브랜드를 협동조합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였다. 2007년 박종찬씨(도농더하기

대표)등은 소농과 가족농의 자립구조를 모색했다. 그는 자연농업연구소에서 야마기시 자연양계 교육을 받으면서 확신하게 됐다고 했다.

- 바른생산자협동조합은 충남 서천군의 소상공인과 농민들로 구성된 전문식자재 유통 사업자협동조합으로, 대형마트 및 대형유통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서천상권을 회복하고, 소비자들에게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했다.

-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의 주제발표가 끝나고 진행된 토론에서, 충남연구원 미래전략단 송두범 단장은 중국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존재 유형과 쑤저우(蘇州)의 사회적기업 부화(孵化)단지의 운영 상황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쉬자량 교수는 중국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이 아직 조사통계 자료가 없고 쑤저우에 있는 사회적기업 부화단지의 운영이 직면한 어려움중 대표적인 것은 “사회적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기준 문제라고 답변 했다.
- 이번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의 개최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상하이와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관련 현황과 활동경험, 지식 등을 교류하고, 향후 양국의 사회적경제분야의 발전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림 2〉 제1차 한중 사회적경제 국제세미나 단체 사진

- 4월 개최 예정이던 '제10차 충청중국포럼'은 이 세미나로 대체했습니다. 다음 제 11차 충청중국포럼은 5월 25일(수) 14시30분부터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조현규 국방부 25사단 부사단장(前 주중한국대사관 무관)을 모시고 '중국의 당·정·군 관계 및 대(對) 한방도 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발간 목록

호수	발간월	주제	비고
제1호	2015년 6월	육상 및 해상 신실크로드(一帶一路)건설과 중국의 국토발전축	-
제2호	2015년 7월	신상태 시대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
제3호	2015년 8월 · 9월	징진지 지구 일체화 정책 추진 동향과 충남의 시사점	합본호
제4호	2015년 10월	중국 삼농문제의 연원과 관련정책 동향	-
제5호	2015년 11월 · 12월	산동성 남색경제 발전전략	합본호
제6호	2016년 1월 · 2월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
제7호	2016년 3월 · 4월	한중 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